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09호

Wednesday, January 8, 2025 A

미국, 중국과 해양패권 경쟁 예고
트럼프 "배 만드는데 동맹국 활용"
지난 11월에도 "한국 도움 필요"
업계 "한·미 방산협력 확장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업체를 협력 상대로 록 잡어 거론했던 만큼 수주 기대감을 높이는 언급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6일 보수 성향 '휴 휴잇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재건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배가 필요하다"며 "예전에는 하루 한 척씩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배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하려 한다. 배를 만드는데 동맹국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트럼프가 언급한 '조선 동맹국'의 유력 대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향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화오션이 유지·보수·정비사업으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슈리함'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한화오션이 유지·보수·정비사업으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슈리함'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하는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발판삼아 군사적·상업적 해양 패권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 강화

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의 해군력 강화 계획을 언급하다 "중국은 나중에 한 척씩 배를 건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며 "우리는 선박(건조) 준비가 안 돼 있고 도크(dock)가 없다. 바이든이 모든 부두를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HD현대·한화오션 등 조선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산업 중에서 트럼프 집권 시 수혜를 기대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데, 조선만은 예외적으로 협력 요청을 받는 상황"이라며 "유지·정비·보수(MRO) 사업을 시작으로 합정 건조까지 확장될 방산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업체들이 미 해군 군함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합정 건조까지 수주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 번스-톨리프스 수정법에 따라 미 해군 합정 건조는 해외 조선소에서 만들 수 없게 됐다"며 "미국에서 이 법이 완화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미국 합정을 만들 순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수정 기자

보궐선거 3곳, VA 의회 다수당 바꿀 수도

7일 투표율 크게 낮을 듯

폭설 사태로 도로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7일(화) 버지니아의 세 곳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주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제32지구 상원선거구와 제26지구 하원선거구 결과가 주목된다. 상원 제32지구는 수하스 서브라만암 의원이 지난해 11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돼 공석이 됐다.

제26지구 하원의원이었던 케넌 스리나바산 의원이 상원 제32지구에 출마하면서 궐석 지구가 됐다. 두 선거구는 모두 라우던 카운티에 위치해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 출신의 두 의원이 정치적 야욕을 부리는 바람에 불필요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됐다면서 공화당 지지를 당부했다. 현재 버지니아 상하원의회는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의회는 21대19, 하원의회는 51대49로 아슬아슬

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제32지구에서 승리한다면 상원 의석은 20대20으로 동률을 이루게 된다. 상원의회는 원석 열-시어즈 부지사(공화)가 상원의장을 겸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 지위가 바뀌게 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동률을 이뤄 민주당과 분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상원 제32지구 공화

당 후보 터메이 하딩이 스리나바산과 맞붙고, 하원 제26지구는 공화당 후보 램 벤카타차람이 민주당 후보 JJ 심과 대결한다. 나머지 보궐선거는 상원 제10지구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존 맥과이어 의원(공화)의 궐석으로 치러진다. 공화당은 도로 사정 탓에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다수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욱재 기자

금요일부터 다시는

연방기상당국은 내일(9일)부터 텍사스, 뉴멕시코 등 남부 지역과 중서부, 대서양 중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20개주에 걸쳐 다시한번 폭설 사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워싱턴지역은 10일(금) 오후부터 눈구름 대가 모이면서 한파와 함께 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진눈깨비나 비가 올 수도 있다. 기상당국은 목요일 오후에나 워싱턴 지역의 정확한 적설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301-279-6960
원장 Dr. 김동국 D.C.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폐입
순금 야기 플랜지 및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관저 4중차벽 요새화... 경찰,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 검토

체포도 실패하면 수사 좌초 위기 경호처 저항 땀 물리적 충돌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공수처는 함께 공조수사본부부를 구성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조율을 완료하는 대로 조만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1차 영장(7일)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1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3일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 30분간 벌어진 체포 시도, 이어 유효기간만료로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까지 현정사 초유의 일의 연속이다.

법조계에선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가 1차 영장을 지난 3일 단 한번 시도만으로 묵히고 경찰에 ‘지휘 공문’을 보내 윤 대통령 체포를 떠넘기려다가 경찰과 공조 균열은 물론 법적 논란과 수사 혼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18일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받아가고선 3주간 체포영장 발부 외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3일(위 사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입구에 버스 1대로 차벽이 만들어진 반면, 6일에는 버스 7대가 네 겹의 방어벽을 형성하고 있다. [뉴시스]

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고 있다. 오 처장이 국회에 “(3일 집행 시도 때) 숫자상으로 적어 물리력을 행사했다간 압도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고받았다. 진입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

다”고 할 정도로 경호처 저항이 거셴기 때문이다.

이에 국수본은 2차 집행을 위해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 30명, 국수본 120명 등 150명 규모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됐던 1차 집행 때보다 인원부터 몇 배 늘 수 있다. 이번엔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을 특수공무집행행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호처의 스크림을 무너뜨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경호관 400명을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경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적었다.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집행 때도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장에서 공수처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행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이날 법사위에서 오 처장은 최 대행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며 “특수공무집행행해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최

대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의 철벽 방비 역시 훨씬 두터워졌다. 3일 대형 버스 한 대를 가로로 세웠던 관저 진입로 입구 차벽을 6일엔 무려 7대를 동원해 세 겹 네 겹 쌓은 게 대표적이다. 차로 이외 관저로 접근하는 길목엔 외벽 밖에 가시철조망까지 둘러쳤다. 경호처의 ‘관저 수색 불허’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물리적 충돌 없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6일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오 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2차 체포 시도마저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뒤 3주간 수사가 답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마저 “무능, 무의지, 무책임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대대강 대치만 고집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의 대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대영(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이 앞서 1차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김정만·이찬규 기자



최상목 “장관들 모두 힘 모아야”... 리더십 논란 1주일 만에 원팀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무회의에서 “각 국무위원께서는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저도 함께 국정 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

명을 둘러싸고 “독단적 결정”이라 반발하는 일부 장관과 충돌했던 최 대행은, 이날 ‘함께’라는 단어를 쓰며 국무위원 간 협력을 수차례 강조했다.

8일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 장관님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 대행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졌던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최 대행의 모두발언 뒤 비공개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나같이 함께 푹푹 뭉쳐 단합해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최 대행도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최 대행은 지난 일주일간 일부 참석자에게 전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불개입 기조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지난 3일 민주당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박태인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목) 32~19 ☁	12일(일) 36~17 ☀
10일(금) 32~25 ☁	13일(월) 41~25 ☀
11일(토) 37~23 ☁	14일(화) 37~18 ☁

1월 8일(수) 32~2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한미우호상’ 후손을 찾습니다

1963년 설립된 ‘한미협회’
고 이원순 초대회장 부부

“미국에 살고 있는 후손을 꼭 찾아 선대의 공로를 기억하도록 상패를 전달하고 싶다.”

한미협회(Korea-America Association·회장 최중경)가 한미관계 발전과 한국 근대화에 공헌한 고 이원순(李元淳) 초대 한미협회 회장의 자손을 미국에서 애타게 찾고 있다.

KAA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해 1963년 설립된 민간 단체다. 이원순 회장을 시작으로 송인상, 정세영, 구평희, 한승주 등 주요 정치계 인사들이 회장을 맡아 양국 간 활발한 교류를 주도해왔다.

KAA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제22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를 열고 ‘한미우호상’ 수상자로 이 회장 부부를 선정했다. 하지만 시상 때에는 이 회장의 가족 대신 그와 인연이 깊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나와 대리 수상했다. KAA가 이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한국 내에선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KAA는 결국 미주 한인언론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지난해 말 본지를 찾아왔다. 김 이사장은 “KAA가 갖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세 딸과 그 후손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한국



이원순(앞줄 오른쪽) 초대 한미협회 회장과 부인 이매리 여사(앞줄 왼쪽)와 쌍둥이 딸과 자녀들.

[한미협회 제공]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대리수상하며 전달 받은 상패. [포럼 제공]

에선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미국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198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당시 고문이던 이 전 회장과 지근거리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이 전 회장은 현대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890년 서울 출생인 그는 보성전문학교 졸업 후 하와이로 망명했다.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3.1운동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등 미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한 그는 뉴욕에서 한미무역회사를 설립했으며, 미 의회에 한인 이민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해방 직후인 46년 스톡홀름 국제올림픽 위원회 회의를 한 달 앞두고 조선 올림픽위원회의 가입 종목 승인을 받기 위해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활동한 무용담은 한국 올림픽사에 회자하고 있다.

이어 63년에 KAA를 창설해, 한미 교류에 헌신했다. 이런 공로로 한국정부는 91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93년 작고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외삼촌이다.

대리 수상자 김 이사장은 “한미가 교라는 든든한 역할을 하시면서, 조용히 티 나지 않는 버팀목처럼 수많은 후

배에게 귀감이 된 분”이라고 이 전 회장을 회고했다.

부인 고 이매리(李梅利) 여사는 29년 하와이주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회장에 앞서 83년 작고했다.

이 전 회장 부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지만, 한국전에서 전사했다. 세 딸은 아그네스, 마리안, 릴리안 이라는 이름 이외에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KAA에 따르면, 셋 모두 미주 한인교 결혼해 미국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80대 중 후반이다. 그 후손들도 여전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이사장은 “일제를 벗어나 조국 근대화와 서울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 회장의 자손들에게 상패를 전달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부부가 수상한 상패는 미주중앙일보에 보관 중이다.

최중경 KAA 회장(전 지식경제부장관)은 “한인사회의 소식을 속속들이 전하고 있는 미주중앙일보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자손들과 만날 날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락처: 최중경 회장 (choijk1956@hanmail.net), 본지: (310) 617-9795

최인성 기자

데이터센터 식수 오염 우려

북버지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데이터 센터 탓에 식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산하 환경자문위원회(EQAC)가 펴낸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데이터센터가 다량의 냉각수를 소비하면서 식수원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는 컴퓨터장비에서 발생

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사용한다.

현재와 같은 증설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버지니아 지역 데이터센터에서 1일 평균 7천만 갤론 이상의 냉각수가 필요하다.

냉각수는 하수도를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에 모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늘려야 한다.

증발 냉각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잔

류물에는 ‘불로우다운’으로 불리는 고농도의 식염수가 포함돼 있다.

라우던 카운티 등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는 북버지니아 지역 하수 시스템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페어팩스 카운티 인근의 오크란 강 유역에서 배수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이 유역의 나트륨 수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EQAC는 가뭄이 특정 시기 이상 지속될 경우 데이터센터 냉각수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냉각수를 일반 상수도 대신 재활용 폐수를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EQAC는 냉각수 문제 외에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잔류 허용량을 연방환경보호청(EPA)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PFAS는 1940년대부터 사용된 인공 화학물질로, EPA 규정이 강화되면서

북버지니아 지역 상수도 회사인 페어팩스 워터가 2029년까지 5억 달러의 추가 정화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페어팩스 워터는 정부기관의 도움이 없다면 요금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FAS가 함유된 각종 소비재 및 가정용 제품은 하수구로 씻겨 내려간다.

PFAS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화 노력이 없다면 상수도를 통해 인체 섭취가 불가피하다.

김욱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채틀리 GTR
GOLF TRAINING REVOLUTION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GTR 703-817-2130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채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치솟는 스트리밍 비용 부담... 알뜰 절약법 있다

투자 수익 실현 이유 잇단 인상
디즈니+ 5년간 129% 인상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를 가져다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소비자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고 있다.

업체들이 지금까지 구독자 확보를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구독료를 지속해서 인상하는 등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디즈니+의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는 월 가격이 9.99달러로 처음 출시된 2022년 7.99달러에서 25% 올랐다. 광고 없는 요금제인 디즈니+ 프리미엄은 지난 2019년 6.99달러에서 최근 15.99달러까지 129%가량 인상됐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3년 광고를 포함한 요금제(월 6.99달러)를 도입하면서 광고 없이 시청 가능한 가장 저렴한 베이직 플랜(월 9.99달러)을 아예 폐지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3.99달러였던 스탠더드 플랜은 가격이 15.49달러로 올랐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재무 책임자 군나르 비덴펠스는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에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수익 증가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스트리밍 서비스의 빈번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스트리밍 기업들이 요금제 가격을 매년 인상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양한 절약법을 사용해 구독료 부담을 줄일 것을 추천했다. [로이터]

한 가지 방법은 월별 요금제 대신 연간 구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마존 프라임은 월 14.99달러에 제공되지만, 연간 139달러로 전환하면 40.88달러를

아낄 수 있다. 훌루는 광고 포함 플랜에서 월 9.99달러를 청구하지만, 연간 99.99달러로 선택하면 19.89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디즈니+ 역시 연간 구독으로 변경하면 각각 27.89달러와 31.89달러를 아낄 수 있다.

비록 단일 구독의 절약 금액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연간 구독으로 변경하면 그 절약 효과는 크게 누적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 훌루, 유튜브 프리미엄, 디즈니+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4곳을 모두 연간 구독으로 변경하면 약 12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비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통신사 요금제는 무료 또는 할인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버라이즌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매달 10달러에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디즈니 번들(디즈니+, 훌루, ESPN+), 광고 포함 HBO 맥스와 넷플릭스의 조합 등을 고를 수 있다.

서비스가 아예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T모바일은 일부 요금제에 넷플릭스와 애플 TV+를 포함한 혜택을 제공한다. T모바일은 과거 광고 없는 베이직 플랜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넷플릭스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실업자 재취업 갈수록 ‘바늘구멍’

“실업지표 좋지만 이면은 취약”

직장을 잃은 후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인용해 보도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6개월 이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60만명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말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업 후 새 직장을 찾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6개월로, 2023년 초 대비 1달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종료 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구인난 시달리던 노동시장이 이제



는 실업자들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구직난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업계나 법률, 미디어 부문 등 팬데믹 이후 고용을 많이 늘렸던 분야에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나타났다.

작년 11월 실업률은 4.2%로 팬데믹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가 안팎에선 일각의 우려와 달리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WSJ은 이와 관련, “노동시장은 헤드라인 지표만 보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로는 보기보다 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 초만 해도 실업자 1명당 2건의 구직 수요가 있었던 반면 현재는 실업자 1명당 1건의 구직 수요로 줄어든 상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개고기 민족’ 조롱에도 침묵하는 한인 단체

한인을 개고기 식용 민족으로 지칭하며 비웃고, 영어도 못하는 무례한 이들로 조롱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LA 한인 단체들의 씩씩한 모습이 다. 최근 유명 라디오 진행자 빌 헨델이 방송 도중 한인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그러자 아시아계 단체들이 나서 헨델의 방송 하차를 요구했다. 주류 언론들까지 나서서 관련 내용을 보도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정작 한인 사회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다. 논란이 불거진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성명 한 장조차 내놓는 한인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인 사회가 반응하지 않는 사이 아시아계 단체들이 대신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미디어 행동 네트워크’는 라디오 방송국 KFI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언론인 협회는 헨델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현재까지 입장을 내놓은 건 LA 한인회뿐이다. 로버트 안 선임 LA 한인회장은 지난달 30일 본지에 전달한 성명에서 “한인회는 인종차별 발언 전력이 있는 헨델이 또 방송에서 반아시아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세대를 주축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한인 단체들도 이제는 좀 더 미국화된 한인 1.5세, 2세 등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든지 주류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오

히려 한인 단체들의 역할은 퇴보한 듯하다. 이는 한인 사회의 구심점이 없고, 결집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 회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지에 “한인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의 바람과 달리 현실을 보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인회를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잇따르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면 ‘정치력 신장’은 헛헛한 구호에 불과하다. 평소에는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런 일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한인 단체의 존재성은 무색해진다.

한인 단체들의 이런 식의 무관심은 사건의 본질을 짚거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후속 행동은 전무했다.

“둔기 피살 80대 한인, 용의자는 아들”

최근 둔기에 의한 외상 후유증으로 숨진 80대 한인 시니어가 사망 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라 록신 LA카운티검찰청 공보관은 6일 한인 남성 시니어 경장(82)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 장준석(56)씨는 숨진 장씨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용의자 장씨는 현재 살인미수 및 시니어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용의자 장씨는 지난해 11월 1일 부친을 공격했다. 에디 로멜리 클레어몬트경찰국 형사는 지난달 27일 부친 장씨가 클레어몬트 지역 이스트 베이슬라인 로드 인근 주택가에서 지인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멜리 형사는 “공격을 당한 아버지

장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양로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는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이후 부친 장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11분쯤 클레어몬트 지역 사우스 인디언힐 볼라바드 500번지 인근 양로병원에서 사망했다. LA카운티검시국은 장씨의 사망은 살인에 의한 것이며,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후유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6일 오후 5시 현재 통화하지 못했다.

김경준 기자

한인 버스 운전사 살해 용의자 6일 인정신문에서 무죄 주장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 메트로 버스 운전기사 선 임(59)씨를 살해한 용의자가 6일 진행된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6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카운티 법원 판사는 리처드 시즈랙(53)에게 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시즈랙을 흉기 사용한 1급 살인 혐의를 비롯한 페퍼스프레이를 사용한 2급 폭행, 운전사를 발로 찬 3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오전 3시쯤 워싱턴대학 인근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임씨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뿌린 뒤 버스에서 끌어내 인근 골목으

로 데려가 흉기로 찔렀다. 시애틀 경찰 측은 사건 발생 며칠 뒤 메트로 버스 안에서 시즈랙을 체포했다. 그는 과거에도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나 정당방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킹 카운티 통합 운수 노조 587(ATU 587)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애틀 루멘필드 이벤트 센터의 WAMU 극장에서 임씨의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

중앙일보 구독 신청
703-281-9660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국회, 트럼프 취임식 간다

(여야 외통위원)

국민의힘, 자체 방미단도 구성
김, 장례식서 트럼프 만날 가능성
정용진, 취임식·무도회 모두 초청

국회가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낸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야 의원 각 3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건 간사와 윤상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배 간사와 조정식·홍기원 의원 등이 합류할 예정이고, 최종 명단은 8일 확정된다.

당초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탄핵정국에 따른 '출국 자체령'을 내리자 취임식에 불참할 계획이었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미국 국내 행사"라며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의원 외교에 소홀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의원 외교 필요성에 따라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국회 대표단에 합류하기로 선회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의원 외교 활동을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의 만남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취임식 및 만찬 무도회에 참석할 방미단을 구성키로 했다. 개인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은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과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방미단의 단장은 김기현(5선) 의원이 거론된다. 이들은 김 대변인을 초청한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는 미국 측의 초청이 없으면 참석할 수 없어 야권

은 별도 방미단을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재계에서도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재계 인사 중 유일하게 취임식과 무도회 모두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21일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렀고, 일정 중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하며 약 10~15분간 환담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9일(현지시간) 열리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김장환(91) 극동방송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도 김 이사장과 따로 만났을 정도로 두 사람은 친분이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김 이사장이 트럼프 측과 소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기정·장주영·박현주 기자



김장환



“고맙다는 말 전하고파”

한국 친부모 찾아나선
미국 입양인 김영은씨

“친부모가 건강한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점을 닦았는지도요. 이 모든 것을 대신해 그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만이라도 전하고 싶어요.”

미국 입양 한인 캐서린 엘리자베스는 오트(한국명 김영은·33·사진)씨는 3일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을 통해 “친부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92년 9월 13일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강남병원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체중은 2.46kg이며,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당시 28살 동갑내기 친부모는 김씨를 낳은 뒤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다.

입양 기록에 친부 이씨는 177cm의 키에 마른 체형이고, 눈은 작았지만 순수한 외모였다고 돼 있다. 이씨는 조용한 성격에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다. 친모 김씨는 162cm의 키에 짙은 쌍꺼풀이 있었고, 흰 피부에 주근깨가 많았다. 활발한 성격으로 운동

을 좋아했다. 원래 친모는 혼자서라도 딸을 키우려 했지만, 미혼모의 자녀로 자라는 것보다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입양을 선택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 새기노시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양부모에게는 한국에서 입양한 3살 위 오빠가 1명 더 있었다”며 “양부는 전기 엔지니어, 양모는 위생사이자 특수교육 교사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미시간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및 사회정책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남편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다.

메릴랜드 주민 70% 이상 세금인상 반대

30억달러 적자 보충 방안 고심

메릴랜드 주민 70% 이상이 각종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잘레스 리서치 앤 미디어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8%가 주정부 소득세 인상에 반대했다.

또한 73%가 판매세, 77%가 재산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릴랜드 등록유권자 811명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1월 4일 사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였다. 메릴랜드는 최근 3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릴랜드는 최근 6년간 교통재원기



금 적자액만 13억달러로, 각종 정책 해소 프로그램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웨스 무어(사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61%로 9월에 비해 3% 포인트 하락했다. 무어 주지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응답자의 67~71%도 각종 세금 인상에는 반대했다.

전문가들은 무어 주지사가 2028년 대선출마를 고려하고 있으나 2026년

주지사 재선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어 주지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인상해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조세저항이 심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다면 차기 대선 행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래리 호건 전 주지사의 주지사 재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호건 전 주지사와 무어 현 주지사간 가상 대결 조사가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무어 주지사는 52%, 호건 전 주지사는 38%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호건 전 주지사가 재출마를 선언한다면 만만찮은 호박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채 기자

눈방학 잔여일수 넉넉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는 최근 폭설 사태로 최소 이틀 이상 휴교하고 있으나 대비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매 교육년도에 출석일수 180일 또는 수업시간 990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스케줄 상 이미 수업일수와 수업시간의 최소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휴교일을 고려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셸 리드 교육감은 “3년 단위로 학사일정을 정리하기 때문에 기상 악화에 따른 휴교일 여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알링턴 카운티 교육청은 눈휴교 예비일이 13일에 이른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라우던 카운티도 각각 12일과 13일을 준비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프레더릭 카운티는 눈휴교 여부를 빌트인 형태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늦춰지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라조물) 웨일리도레방
300m 뉴타운
미라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미사일 동시에 1000발... 북, 전방에 TEL 250대 배치 움직임

(이동식발사대)



북한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한 화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언급 '화성-11라' 발사대 추정 국방정보본부 '한·미 공조 집중감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 배치를 공언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이동식발사대(TEL) 250대를 실제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TEL 250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한 질의에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공조하에 집중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전 배치 움직임은 없다"고 했던 군 당국의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50대 발사대에 탑재한 재래식 미사일 등을 핵무기와 섞어 쓰는 배합전에 이용할 경우 한국의 방공 자산을 현격하게 소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250대의 발사대가 국경선 제1부대에 실인도됐다"고 주장했

다. 이는 근거리미사일(CRBM) '화성-11라'형의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됐다. TEL은 대당 4개의 발사관이 있어 250대 배치 시 이론적으로는 미사일 1000발을 동시에 퍼부어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체계 등 최전방의 구형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는 식으로 소진하고, 신형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남 공세의 일환일 수 있다.

북한이 전날(6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도 미국을 겨냥한 과시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7일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HGV)는 음속의 12배(마하 12)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km와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고 동해상 1500km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발동기(엔진) 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썼고, 비행·유도조종체계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이번 발사를 화상으로 지도하며 "이번 개발의 목적은 핵전쟁 역제력을 고도화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6일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데 있다"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공망 회피 기술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며 "북한의 기만전술"이라고 반박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물수제비가 뒤뚱 변칙 기동을 하는 게 특징인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번 미사일은 지난

해 4월 북한이 공개한 '화성포-16L'형과 동일 기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획기적인 기술 진전이 없는 데도 "실효성이 확인됐다" "누구도 대응할 수 없다"며 "말폭탄"을 늘어놓은 건 골몰어서는 노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를 겨냥한 관심끌기용 메시지 발신일 수 있다.

실제 김정은도 발사 지도에서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일을 암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명도 거론하지 않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모양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AI칩 전쟁' 엔비디아·인텔·AMD 나란히 신무기 꺼냈다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개발장벽 낮춰, 시장장악 야심

모든 인공지능(AI)의 길은 결국 반도체로 통한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재확인된 혁신의 물이다.

CES 2025의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인텔·AMD가 격돌했다. 저마다 AI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선보였다. 첨단 AI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수인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CES 2025에서 펼쳐진 것이다. 이들 기업에 메모리칩 공급을 노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6년 만에 CES 무대에 돌아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슈퍼스타급 흥행력을 과시했다.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첼콧 올트라 아레나는 황 CEO의 기조연설 2시간 전부

터 폭발했다. AI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장악한 빅샷이 된 그는 90분 동안 설 새 없이 야심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AI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면서 "엔비디아는 AI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대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도체 파트너사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날 황 CEO는 소비자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로 불리는 GB10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모두 차세대 아키텍처 블랙웰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신작 지포스는 전작 대비 AI 연산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그는 파트너사들을 꼭 집어 언급했다. 신제품 GPU엔 "마이크론의 초고속 그래픽 D램(GDDR7)을 썼다"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에는 "(대만 설계전문기업) 미디어텍과 함께 1급 비밀 칩 CPU(중앙처리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은 이번에도 모두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TSMC가 맡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발표 직후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는 나스닥 시간 외 거래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6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 올트라 아레나에서 'CES 2025'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 5% 이상 급등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특히 황 CEO는 앞으로 커질 AI 시장의 모든 분야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하드웨어인 AI 가속기 외에도, 산업용 AI·로봇용 AI·자율주행용 AI 등 거의 모든 분야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그는 "새로운 물리적(physical)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Cosmos)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의 원맨쇼

를 자축하듯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주당 149.43달러)를 갈아치웠다.

한때 세계 최대 종합반도체 회사였던 인텔도 CES에서 재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전격 사임한 옛 켈싱어 CEO 후임자인 인텔의 임시 공동 CEO 미셸 존스톤 홀트하우스는 이날 콘퍼런스를 열고 무대에 올라 인텔 자체 파운드리에서 18A(1.8나노미터급) 공정으로 만든 차세대 '팬서레이크' 완제품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 올해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는 TSMC·삼성전자와 다시 겨뤄보겠다는 것이다. 미셸 존스톤 홀트하우스 CEO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2025년은 인텔에 전환점(pivotal yea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주력 사업인 중앙처리장치(CPU)에 이어 파운드리에 재도전했다가 실패해 최근 1년 새 주가가 59% 하락했다.

AMD 역시 올해 CES에 참가해 AI 기능을 강화한 신형 칩을 선보였다. AMD는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하며 양쪽에

서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MD는 인텔과의 경쟁에서 40년 넘게 열세에 머물러 있었지만 최근 인텔이 부진하면서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AMD가 새롭게 공개한 '라이젠 AI 맥스'의 최고 성능이 애플의 자체 설계 반도체이자 현존 최고 성능 칩셋으로 평가받는 맥북 프로의 M4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텔 테크놀로지의 기업용 PC에 처음으로 인텔이 아닌, AMD 칩을 공급한다는 발표에 힘입어 이날 뉴욕증시에서 AMD 주가는 3% 이상 뛰었다.

AI 기능을 강화한 반도체들이 CES에서 대거 쏟아진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수장들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복판에서 뛰었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이날 젠슨 황 기조연설 현장을 직접 찾았다. SK하이닉스 역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 등이 CES에 총출동해 주요 고객사 영입에 나섰다. 엔비디아가 이날 공개한 차세대 GPU 열자리는 미국 마이크론이 차지했지만,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라스베이거스=이희권 기자, 심서현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봉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봉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온드 페닌슐라 상담원영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지난 한 해 동안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과 고객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현대 부동산 일동 -

2025
乙巳年

Happy New Year!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민심 잃고 휘청인 트뤼도 트럼프 조롱에 무너졌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 오타와 총리공관 앞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총리 취임 9년2개월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 총리, 집권 9년 만에 사임
코로나 이후 고물가 탓 지지율 추락
퇴진 압박에 미 관세폭탄 약재 겹쳐
트럼프는 재차 “미국의 51번째 주”

쥘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사임했다. 고물가와 경제위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으로 궁지에 몰린 트뤼도 총리는 이날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가 지난 수개월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내가 (당내에서)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사임 배경을 밝혔다. 캐나다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다만 총리직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내각제인 캐나다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데, 후임 총리로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캐나다 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 피에르 트뤼도의 장남으로 태어난 트뤼도 총리는 2008년 자유당의 텃밭 중 하나였던 퀘벡주 몬트리올의 파피노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젊은 시절부터 여배우 출신 어머니를 닮은 잘생긴 외모로도 인기를 끌었다.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41세 때 자유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리고 2015년 자유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 43세에 총리가 됐다. 이때 ‘캐나다의 오바마’란 별명도 붙었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야기된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미국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레이드가 실시한 조사 결과 트뤼도의 지지율은 2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임 결정의 ‘방아쇠’를 당긴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다. 그는 캐나다가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뤼도는 트럼프가 당선되자 지난해 11

월 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트럼프는 할레벌떡 찾아온 그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떤가?”(당신은 캐나다 주지사)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트뤼도는 이 자리에서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한때 트뤼도의 최측근이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트뤼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라며 6일 뒤 전격 사퇴했다. 이후 자유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졌다. **트럼프 “그린란드, 미국 일부 되면 혜택”** 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을 인준받은 트럼프는 트뤼도의 사임 소식에도 “캐나다의 많은 사람은 (미국의) 51번째 주(州)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며 “미국은 캐나다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고, 트뤼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함께라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될까”라고 했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은 캐나다

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린란드를 언급하며 “그린란드 사람들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들었다”며 “그린란드는 놀라운 곳이고,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면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트럼프는 특히 “내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여러 대표가 가장 웅장한 지역(그린란드)과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그곳을 여행할 예정”이라며 7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이 그린란드 매입 등 영토 편입 언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NYT “트럼프, 군사력 토대 타국영토 탐내”** 트럼프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최근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미국의 성조기가 걸린 파나마 운하 사진을 게시하며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타국의 영토를 빼앗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불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세 나라에 대한 도발은 현실적으로 운하 통행료 인하와 캐나다·덴마크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NYT는 트럼프가 이들 세 나라를 특정한 것과 관련, “트럼프가 1기 행정부에 이어 또다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안보와 상업적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다”며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선점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린란드엔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서반구로 진출하는 핵심 동맥으로 꼽힌다. 파나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NYT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 고립주의와 달리 군사력을 토대로 타국 영토를 탐내는 팽창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하수영 기자**

‘트뤼도 사퇴’ 여론 불붙인 전직 재무장관, 후임 총리 물망에

사임 의사를 밝힌 쥘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의 후임으로 사퇴 여론에 불을 붙인 전직 재무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사진)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트뤼도 총리의 오랜 친구인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후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프릴랜드 전 장

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5%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트뤼도 총리와 충돌하며 지난 달 전격 사임해 트뤼도 총리 퇴진론에 불을 붙인 주인공이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트뤼도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며 다가오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는 입장이었다. 핵심 측근이었던 프릴랜드 전 장관 이 등을 물리면서 이미 고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던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결정타를 맞았다. 프릴랜드 전 장관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1기 행정부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을 이끌 기도 했다.

프릴랜드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재무 장관에 임명된 르블랑 장관도 트뤼도 총리의 후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트뤼도 총리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인 그는 2000년 의회에 입성, 트뤼도 내각에서 공공 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각종 요직을 맡아왔다. 2012년에는 직접 자유당 대표 출마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트뤼도 총리의 출마 계획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최근 인도와의 외교 갈등에서 인도 외교관 추방을 결정하

며 앞장섰던 졸리 외무장관 등도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총재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도 최근 당 대표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캐나다 매체들이 전했다. 현재 캐나다의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자유당의 대표가 맡는다.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이 선출하는 후임 대표가 총리직도 수행하게 된다.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버지니아 맥클린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모두 꾸며져있는자리 5000 SF	제과점 자리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제과점 자리 3000 SF	Beer and Wine Shop VA 알링턴,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2400 SF, 렌트 \$7200, 조건부임대계약
자동차 메카닉샵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 메카닉샵 운영하실분 판매가 10만불, 월5만매출, 차고3개	리 커 워싱턴 디씨,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MD 롱고메리카운티,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컴퓨터 수리점 버지니아 애쉬번 데이터센터주변, 10만불 연매출 20만, 장비와 인벤토리 포함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트맥밀, 인기 많은 집, 25만불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창고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창고 임대 3900 SF, 로딩막 있음	스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2025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장미원
703-486-6082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포트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양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스탑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uniwfm.com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VA 뉴포트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맹운·찐운·멀운·비운·반운... '운 체포' 놓고 분화하는 여당

(맹렬한 친운)

(멀어진 친운)

야당 내란 철회 등이 분화 기폭제 맹운 대표주자는 윤상현·김민진 멀운·비운 40여명, 반운은 7명

12·3 계엄 사태 이후 숨죽여온 여당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장은 백가쟁명식이다. 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란 공감대 속에 탄핵 찬반으로 나뉘었다면, 최근엔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헛발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야당의 방침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맹운(맹렬한 친운)·찐운(진짜 친운)·진운·멀운(멀어진 친운)·비운·반운 등으로 해체모이는 중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44명 의원이 모여 ‘체포 반대’를 외친 게 분화점의 기회였다.

‘맹운’의 대표 주자는 윤상현(5선)·김민진(조선) 의원이다. 최근 관저를 자주 찾은 윤 의원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시도는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준다”며 눈물을 흘렸던 비례대표 김 의원도 윤 대통령 지지기를 자처했다. 둘은 “비상수단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을 막

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은 말을 해왔다.

두 의원이 선봉대 같다면, 4일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강승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이철규·임종득·조배숙·조지연 의원 등은 ‘찐운’이다. 당시 연단에 오른 이철규 의원은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기 위해 그릇된 판단으로 흩어진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치겠다”고 했다. 이 집회는 ‘아스팔트 우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

6일엔 맹운·찐운 외 30여 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모였다. ‘범찐운’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월권이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 자체가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한다. 의명을 원한 관계자는 “이날 관저에 모인 의원은 친운 핵심의 연락을 미리 받은 의원과, 나중에 집결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원들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일부 찐운의 추동에 어정쩡하게 눈치를 보던 의원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맹운·찐운에 눈치를 보는 친운까지 한데 모인 건 보수 진영의 여론을 주도 하다가 시피 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맹운	찐운 4일 전광훈 집회 참석자	친운 6일 대통령 관저 집결	멀운 관망 및 비운 증진	반운 공개 탄핵 찬성파
김민진 비례	강승규 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경북 구미을	김도읍 부산 강서	김상욱 울산 남갑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구자근 경북 구미갑	강민국 경남 진주을	김성원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예지 비례
	박성민 울산 중	김기현 울산 남을	김형동 경북 안동-예천	김재섭 서울 도봉갑
	이인선 대구 수성을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을	송석준 경기 이천	김기현 경기 성남분당갑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정재 경북 포항북	신성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조경태 부산 사하을
	임종득 경북 영주-영양-봉화	임태영 충북 제천-단양	안상훈 비례	진중오 비례
	조배숙 비례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윤영석 경남 양산갑	한지아 비례
	조지연 경북 경산	이상휘 경북 포항남-울릉	정영욱 부산 수영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	주호영 대구 수성갑	
		정정식 경남 통영-고성	한기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과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여당 지지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진만 덕석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운 그룹과 대척점에 섰던 친한계가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쪼그라들면서 견제 세력이 사라진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이 모일수록 중도층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점은 딜레마다. 실제 맹운이든 찐운이

든 코어는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범찐운 외에 국민의힘에는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는 ‘멀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비판적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날을 세우는 ‘비운’ 그룹이 존재한다. 여러 관계자는 “친운계에 비해 덜

부각되지만 멀운·비운 의원도 40여 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안 표결 때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7인은 ‘반운’으로 분류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 범친운계의 우파 결집론에 힘이 실린다면 필패”라고 지적했다.

손국화·김기정·장서운 기자

자칭 ‘실용주의 비운’이라는 윤상현... “대통령 끝까지 지킬 것” 호위무사 변신 왜?

‘영남당’ 탈피 외친 여당 수도권 5선 새해 들어 관저서 윤과 두차례 만남 ‘당권 확보 위한 지지층 확장’ 해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수도권(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내리 5선을 하고, 그동안 “영남당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윤 의원은 새해 들어 일주일 동안 네 차례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관저 앞에 달려간 지난 6일에는 윤 의원 홀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그는 “대통령은 건강에 문제 없다. 의연하게 계신다”며 윤 대통령의 근황도 전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에도 윤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

고 있다”는 전언을 공개했다.

최근 윤 의원의 행보는 여러모로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6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의원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며 관저 앞에 모인 44명의 의원에게 윤 대통령과의 식사를 권했을 때 의원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적절하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판단에 따른 거절이었다.

이처럼 조심스러운 다른 의원들과

달리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파 사법 카르텔” “중복 주사파 카르텔” 등 거친 표현으로 야권을 공격하고, 3일엔 “공수처장과 체포영장 발부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과 4일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윤 의원의 행보를 놓고 당에선 “놀라운 변신”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의원은 그간 극단적 주장과는 거리를 두

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공약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이 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경상도 의원들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 6일 ‘관저 서신’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운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운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스스로 봤을 때도 설명이 필요한 그의 급변침에 대해 여론에선 여러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당권 확보를 위한 지지층 넓히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재선 의원은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10~15% 정도의 강성보수층 지지를 얻으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윤 의원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려 한다”(윤희석 전 대변인)는 시각도 있다. 비운계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성 주장을 하며 치고 나오는 걸 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윤 의원은 운명 공동체”란 관측도 나온다. ‘명대군 게이트’의 핵심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 의원이었다. 여러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총선까지 3년3개월이나 남은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핵심이었던 윤 의원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8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에겐 자신이 조인한 걸 거론하며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다’며 무소속으로 가도 다 찍어줬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조인했던 김재섭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윤 의원은 관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저렇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 찜찜하다”고 꼬집었다.

성지원 기자

구강교육치과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 1474 Hampton Hill Ct, McLean	887* Ashgrove House Ln, Vienna, VA	1+1년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1002 Salt Meadow, McLean	183* Clachan Ct, Vienna, VA	3년	주재원
★ McLean	979*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주재원
★ Fairfax	966* Scotch Haven Dr, Vienna, VA	3년	타주에서 오는 교민
★ McLean, VA	967*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 McLean, VA	McLean, VA	3년	주재원
★ McLean, VA	585* Rock Forest Ct, Centreville, VA	18개월	새로 이민 오는 가족
★ McLean, VA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 McLean, VA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McLean, VA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 McLean, VA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 McLean, VA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 McLean, VA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 McLean, VA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 McLean, VA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HANS TRAVEL

Worldwide
 월드와이드 버스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신비의 인도여행!

#1

북인도 & 두바이

1/27(월)-2/8(토) 12박13일
\$4,750+항공 인솔자:재키 조

#2

남인도 & 스리랑카

2/7(금)-2/20(목) 13박14일
\$5,150+항공 인솔자:조앤 한

2025년 노블레스

고국 전국일주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항공
 서울-전주-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경주-포항-강릉-속초-춘천-서울-제주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항공

봄 여행 1차 4/22(화)-5/2(금)
 가을 여행 2차 10/15(수)-10/25(토)

교포연합 고국 일주 9박10일 \$2,350+항공
 교포연합 내륙 일주 6박7일 \$1,590+항공

“한국갈때 • 베트남 하롱베이 3박 \$750
 동남아 • 베트남 다낭 3박 \$450
 알뜰여행” • 방콕 파타야 3박 \$490

싱가폴 3박 \$850
 대만 3박 \$690
 홍콩 2박 \$550

인솔자 동행, NO 옵션, 모든 입장료 포함 지역별 최고의 맛집 전일정 5성급 딜럭스호텔 최신행 대형버스

서남권 3박, 제주 2박, 제주 동해 6박 등 원하시는 지역만 선택투어 가능

2025년 봄 여행의 꽃

유럽여행! 시작은 이렇게!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4/29(화)-5/9(금) 10박11일
\$3,590+항공 인솔자:세라 정

한스 단독 미동부 투어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당일투어 \$100
 루레이동굴 당일투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2025년1/20,1/27출발가능

캐나다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미서부 연합투어

서부 4대개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엘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 월,금 출발 \$99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250+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월요일 출발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월	여행 일정	가격	인솔자	항공 불포함
1월	1/12(일)-1/18(토) 쿠바 6박7일 마감	\$2,787	조앤 한	항공 불포함
	1/27(월)-2/8(토) 북인도 & 두바이 12박13일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4,750	재키 조	항공 포함
	1/27(월)-2/6(목) 북인도 9박10일 추천	\$3,490	재키 조	항공 포함
2월	2/4(화)-2/9(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 마감	세라 정		항공 포함
	2/7(금)-2/20(목) 남인도 스리랑카 13박14일 추천	\$5,150	조앤 한	항공 포함
	2/11(화)-2/20(목) 이집트와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마감	데이빗 한		항공 포함
	2/23(일)-3/3(월) 페루일주 8박9일	\$3,595	재키 조	항공 포함
3월	3/3(월)-3/17(월)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리오 데 자네이로 14박15일	\$9,995	재키 조	항공 포함
	3/3(월)-3/13(목) 파타고니아 10박11일 마감임박	\$7,195	재키 조	항공 포함
	3/7(금)-3/16(일)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490	조앤 한	항공 포함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11일	\$3,790	재키 조	항공 포함
	3/25(화)-4/6(월) 일본 맛여행+벚꽃 축제 12박13일 마감	재키 조		항공 포함
4월	4/9(수)-4/18(금) 낭만의 동유럽 9박10일	\$3,490	세라 정	항공 포함
	4/21(월)-5/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애나 김	항공 포함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항공 포함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세라 정	항공 포함
5월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항공 포함
	5/7(수)-5/16(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재키 조	항공 포함
	5/28(수)-6/9(월)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마감	재키 조		항공 포함
6월	6/3(화)-6/15(일) 코카서스3국 12박13일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4,390	조앤 한	항공 포함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라이트 9박10일	\$5,095	재키 조	항공 포함
7월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6,595	조앤 한	항공 포함
	7/12(토)-7/26(토) 백두산+서울 시티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NEW	\$5,990	재키 조	항공 포함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럭스 3박4일 NEW (\$799) (연길-도문-이도백하-백두산(서파, 북파), 용정)	\$799	재키 조	항공 포함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NEW (\$4,500) (북해도-삿포로, 니세코,도야, 후라노)	\$4,500	재키 조	항공 포함
8월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2,190	애나 김	항공 포함
8월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재키 조	항공 포함
	8/1(금)-8/13(수) 아프리카(케냐,빅토리아폭포,남아공) 12박13일	\$12,900	조앤 한	항공 포함
	8/1(금)-8/8(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재키 조	항공 포함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재키 조	항공 포함
	8/4(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항공 포함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재키 조	항공 포함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3,090	세라 정	항공 포함
9월	9/4(목)-9/12(금) 발칸 달마시아 투어 8박9일	\$3,590	세라 정	항공 포함
	9/8(월)-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조앤 한	항공 포함
	9/8(월)-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재키 조	항공 포함
	9/14(일)-9/24(수)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항공 포함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항공 포함
	9/25(목)-10/6(월)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항공 포함
10월	10/7(화)-10/16(목) 동유럽 9박10일	\$3,490	애나 김	항공 포함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항공 포함
	10/15(수)-10/25(토) 한국의 가을 10박11일	\$2,990	인솔자	항공 포함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6,495	재키 조	항공 포함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항공 포함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재키 조	항공 포함
11월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재키 조		항공 포함
	11/27(목)-11/30(일) 팅스기빙 코스타리카 3박4일	세라 정		항공 포함
12월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재키 조		항공 포함

한스관광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2025년 달력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NS TRAVEL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쌍특검 재표결 강행, 최상목도 고발... 강공 '덧'에 빠진 야당

계엄 이후 고발한 인물 20명 넘어 쌍특검 재표결해도 통과 불투명 강경 전략에 일부 중진들 회의론 "협상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7일에도 강·강·강 일변도였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견대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 추가 배치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아직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 국회 선출 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발 이유에 포함됐다. 이 모든 게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란 주장이다. 전날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최 대행 탄핵 주장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단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로써 민주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고발한 여당 정치인, 정부 관계자는 20



여야 모두 "국정안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라"고 말했다(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연합뉴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상목 대행을 지금 고발하면 이 판국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겠느냐"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고발·탄핵하는 모습이 제1당으로서 믿음직스럽게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명을 넘었다.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와 추경호·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수정 없이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부결되면 더 강력한 내란 특

검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재발의하겠다"(강유정 원내 대변인)면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이태표 8표(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은 유지된다"(권성동 원내대표)고 버티는 중이다. 강경 일변도 전략에 일부 중진은 "협상력이 안 보인다"며 혀를 차고 있

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상목 대행을 지금 고발하면 이 판국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나 있겠느냐"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데 다수결로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고발·탄핵하는 모습이 제1당으로서 믿음직스럽게 보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명을 원한 3선 의원은 "최대행 체제가 대내외적 신뢰를 얻어가는 상황에서 무조건 압박만 하는 건 중도층을 돌려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인 이소영 의원도 의원단 텔레그램에 "최상목 탄핵 언급도 '참을인' 열번 째는 새겨야 한다"고 썼다. 다른 중진 의원은 쌍특검 재표결 강행에 대해 "아무 협상 없이 법안을 올려서 부결되면 여론만 고무될 것"이라며 "공개 자리에선 공격해도, 물밑에선 저쪽 당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상해서 가결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한 총리와 최 대행 등 173명을 기관보고에 참석할 증인으로 7일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때(70명)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4, 5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일반 증인을 14일 확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김나한·윤성민 기자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로 잠정 결론... 본인에 통보

한달간 의의신청 기간 뒤 최종결론 "규정에 따라 결과는 공개 못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에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위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

혔다. 다만, 교육계에선 연구윤리위가 표절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가 표절 의혹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근 김 여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는 이의 신청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제보자인 숙명여대민주동문회엔 심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윤리연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조사자에게 먼저 알리고 추후 제보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영주 숙명여대민주동문회장은 "이의제기 당사자인 제보자에게 결과

를 늦게 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연구윤리위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예비조사가 시작됐지만, 학교는 2년 이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조사는 지난해 9월 문시연 총장이 취임하며 속도가 붙었다.

문 총장은 후보 시절 정책 토론회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총장이 된다면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자·이후연 기자

대통령실, "계엄 모의한 바 없어"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

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욱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장, '尹 관저에 있나' 질의에 "정확히 보고받은 건 없어"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여

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네, 맞다"라고 답했다.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했다.

겨울 아이슬란드 오로라 사진 출사

★ 일시: 2025년 3월 20일 ~ 3월 30일 ★

20년 경력의 전문 풍경 사진작가와 함께 환상적이며 우주의 마법과도 같은 오로라와 지구이면서도 또 다른 행성인 화성에 온듯함과 불과 얼음 그리고 빙하와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 겨울의 설원, 설경의 드라마틱한 자연풍경과 오로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6명 제한 (현재 3자리 남았습니다)
 풍경사진작가님 (초보, 중급, 고급) 워크샵 병행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일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

문의: 703-341-7222 (메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세지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풍경사진에 대해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尹 마이바흐도주” “민노총에 경찰 뇌사”...또 판치는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5일 직장인 온라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와 소셜미디어에는 ‘탄핵 찬성 집회에 출동했던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이 심해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거나 ‘뇌사 상태’라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직장이 ‘경찰청’으로 돼 있는 사람이 쓴 글인 만큼 온라인에선 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퍼졌고, 일부 매체는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튿날인 6일 “무전기에 맞아 세 바늘 정도 꿰맨 것은 맞다”면서도 혼수 상태나 뇌사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은 경장”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도피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패널로 나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저에서 벤츠 마이바흐 S600 차량이 나오는 영상을 보며 “청와대에서 경호하며 수없이 봤는데 방탄 차량이 맞다”며 “주로 대통령이 타고, 부인이 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였다. 해당 영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경호처와 대치 중이던 시간에 촬영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가 전날 공개했다. 이 유튜브 방송엔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자인 김어준씨가 이 방송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페인트 모션(faint motion·상대편 속이는 동작)’

을 쓴 게 아니겠냐”고 문자 박 전 행정관은 “저 상황에서 페인트 모션을 쓰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 영상 나가니까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람 고발하지 않았느냐”며 실제 윤 대통령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에 피신할 수 있는 벙커가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일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을 내면서 밤새는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있다”며 “(이런 경우를)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달라”고 당에 주문했다. 전날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이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을 비판하며 블라인드에 올라온 ‘혼수 상태 경찰관’ 내

용을 언급한 걸 비판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혼수 상태가 아니면 가짜뉴스냐”며 “무전기처럼 크고 무거운 물체로 사람의 머리를 정조준했다면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는 중국인 대부분이 맞네요”라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 찍힌 집회 참가자는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 문양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김 의원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는 설명까지 적었다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냐”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발언도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중국인 집회 참여 논란에 불을 지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인의 집회 참여 의혹은 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이 얼마나 집회에 참여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중국인이 집회에 주로 참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김나한 기자

탄핵 뇌관된 ‘내란죄 철회’...여권 “헌재 결정 놓고 시비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지를 놓고 7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계기로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탄핵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지만 여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 등 형사 범죄가 탄핵안에서 모두 제외돼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핵심 내용이 제외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헌법 재판소법』을 언급하며 “677쪽에 탄핵 사유 일부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고 거들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규곡택 의원은 “동일한 사유(내란죄)로 윤 대통령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절차는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7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탄핵 정당성 문제 제기
주진우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
장동혁 “주석헌재법에 재의결 담겨”

민주당, 권성동 과거 발언 지적
“사유서 재정리는 공소장 변경” 주장
“탄핵 일타강사가 내란공범 탈바꿈”

“윤석열, 내란죄로 사형 받을 것”
정청래 발언 파문, 법사위 한때 파행

회 측의 입장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선 곧바로 ‘내란죄 철회’ 논란이 번졌고, 7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거세게 주고받았다. 박근혜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하라’는 듯이 말한다”며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소추 사유 변경을 한 점을 지적하며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한다”고 공격한 것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었다”며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이 내란 일타 공범 권성동으로 탈바꿈했다”고 비꼬았다. 여야의 내란죄 철회 공방은 탄핵심판의 속도에도 직결돼 있다. 헌재에서 내란죄 유무까지 따지게 되면 증인 신문은 거쳐야 하는 등 탄핵심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려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공방이 이날 법사위에서 치열해지자 김경원 헌재 사무처장은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하니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형법상 내란죄 제외 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소추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음모 행위, 국헌문란 행위’ 부분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단은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김진한 변호사가 내란죄 제외 취지를 설명하다 “재판부께서 제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 측과 헌재의 쟁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지적을 불렀던 데 대해선 “권유받은 바가 전혀 없다. 권유하셨던 것 아닐까”하는 추측으로 말한 실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는 입장문을 냈다. “내란죄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이라는 내용이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계엄선포문 등 원문 인용과 여백을 제외하면 26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 중 21쪽에 걸쳐 29회 사용됐다”며 “내란죄 철회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보현·김정연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구인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3%까지 나왔다

(JP모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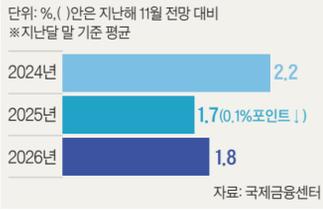
글로벌 IB 8곳, 한국 불확실성 반영 평균 전망치 1.8%→1.7%로 낮춰

계속되는 정국 불안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IB들도 '성장률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IB는 1%대 초반대까지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렸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글로벌 IB 8곳(바클레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은 평균 1.7%다. 전달(1.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나 이달 발표한 정부 예상치(1.8%)보다도 낮다.

IB들은 지난해 9월만 해도 2.1%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 둔화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2%로 내린 뒤 12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특히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글로벌 IB 한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별 금융사의 부정적 경제 전망이 많아진 것은 비상계엄으로 시작한 국내 정치 불안이 가장 큰 이유다.

이번에 전망치(1.7→1.3%)를 0.4%포인트나 떨어뜨린 JP모건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하는 등 내수 부진의 취약성이 커졌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JP모건의 예상치 1.3%는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 가장 낮다.

JP모건과 HSBC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는 각각 1.7%→2%, 1.9%→2%로 오히려 높였다.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원화 가치 급락에 물가 상승 압박도 커졌다고 본 것이다. 성장률은 지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내년 예상도 좋지 않다. IB 8곳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평균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IB 예상대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간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증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여기에 내수 부진의 골은 이미 깊어진 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8월(1.5%) 이후 전월 대비 9월(-0.3%)·10월(-0.8%) 연달아 하락하다가, 지난해 11월(0.4%)에서야 반등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3~9월 내내 전월 대비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해 10월에 보합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지난달에는 관련 지표가 더 위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이 현재의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통과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리스크나 탄핵 국면 같은 단기 충격과는 별개로, 한국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1%대 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1% 초중반까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는 1분기까지는 일단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면 정책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IB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의 분석도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산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으로 경기 하강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동력 확보가 없다면, 향후 국내 경제는 성장 경로를 이탈해 저성장 국면에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출 경기가 악화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건안할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U'자형의 완만한 성장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준·임성빈 기자

정부, 1%대 저성장 전망... "필요시 추경 가능"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 경로를 전망했다.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약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병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게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

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27일 또는 31일 임시공휴일 검토... 최장 9일 휴무 가능

(하루 연차)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연휴를 활용해 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28일(화요일)부터 30일(목요일) 사흘간이다. 월요일인 27일 또는 금요일인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직장인의 경우의 이 기간 하루 연차를 쓰면, 25일부터 2월 2일(일요일)까지 9일간의 '황금 휴가'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건 지난

임시 공휴일 지정시 최장 9일 휴무



해 10월 1일 국군의 날(화요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카드를 또 꺼낸 건 12·3 비상계엄사태와 무안 제주항군 참사 등으로 내수가 얼어붙어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소비·관광 등 내

수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란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휴일이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객만 늘어나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일단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다양한 설 명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세종=왕원석 기자



목·금은 더 춥다... 서울 체감온도 영하 16도 7일부터 북쪽의 한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났다. 한파가 절정에 이르는 9~10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11도, 체감온도는 -16도까지 내려간다. 충청·전라 지역에는 9일까지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이 걷고 있다.

김종호 기자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매매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안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임대 비엔나 켈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 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우리말 바꾸기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은 간지상 ‘을사년(乙巳年)’으로, 뱀띠 해다. ‘간지(干支)’는 ‘10간(天干)’과 ‘12지(地支)’를 조합한 것을 이르는 말로, 간지상 해는 10간과 12지가 짝지어 순차적으로 배합돼 만들어진다. 이는 60가지 조합으로 반복되는데, 이를 ‘육십갑자’라고 한다.

12지는 동물을 나타내는데 자(子·쥐), 축(丑·소), 인(寅·범), 묘(卯·토끼), 진(辰·용), 사(巳·뱀), 오(午·말), 미(未·양), 신(申·원숭이), 유(酉·닭), 술(戌·개), 해(亥·돼지)의 순으로 돼 있다.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이뤄져 있는데, 올해는 그중 ‘을’과 ‘사’가 조합된 ‘을사년’이다.

10간은 2개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는데 (갑·을은 파랑, 병·정은 빨강, 무·기는 노랑, 경·신은 하양, 임·계는 검정) ‘을사년’의 경우 ‘을’이 파랑을 상징하고, ‘사’는 ‘뱀’을 의미하므로 ‘푸른 뱀의 해’가 되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새해 인사를 할 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와 같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간지상 해는 음력으로 셈하는 것이므로, 올해의 경우 1월 29일(음력 1월 1일) 을사년이 시작된다. 채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을사년이 오기 전에 잘 매듭지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평소에 나는 즉흥적인 사람인데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만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 된다.”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문장이다. 기자도 그랬다. 혼자서 여행을 갈 때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훌쩍 떠나는 것을 좋아한다.

가족과 함께 갈 때는 다르다. 어디에 몇 시에도 착해서 어딜 구경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주 세세한 계획을 짠다.

심지어는 가려고 한 식당이나 관광시설이 문을 닫으면 갈 ‘예비 계획’까지 준비해놓는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문서로 만들어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최소 3주 전에 전달하고 숙지를 요구한다.

물론 아무도 보지 않는다. 결국엔 그 종이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검색하면서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직접 말해준다. 왜 하필 이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족 여행의 가이드가 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부모님이 뉴욕과 워싱턴DC로 일주일 간 여행을 가게 됐다. 비행기, 호텔, 렌터카 등을 모두 예약하고 나서 가는 지역마다 여행 계획을 짜드려야 했다.

여행계획을 짜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먼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시설, 식당, 카페, 쇼핑센터 등을 모두 검색한다.

가야 할 곳 리스트를 만들고 혹시 여행가는 날 짜에 문을 닫는지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다. 이후에는 온라인 지도를 켜고 어디에 위치한 지

기자의 눈

AI가 4초만에 만든 여행계획



조원희
경제부 기자

면서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행계획 짜는 일이 쉬웠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이다. 퍼플렉시티(Perplexity)라는 AI 검색엔진에 지역을 넣고 여행계획을 짜달라고 하니 내가 하면 4시간 걸릴 일은 4초 만에 해결해줬다.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어 검증도 해야 하지만 수고가 훨씬 줄어든 것은 확실했다.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크게 다가오고 있다.

노동통계국의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노동 생산성이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했다고 한다. 5개 분기 연속 2% 이상 상승한 것이다. 팬데믹 이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1.6%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산성 향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AI를 꼽았다.

생산성 향상은 창업 붐과도 관계가 깊다. 센서스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월별 사업체 등록 건수는 15만7678건이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일을 적은 인원

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창업을 하기 훨씬 더 수월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이 많다.

신규 사업체들은 AI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고 이를 통해서 적은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창업이 국내 고용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은 AI의 발전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빈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던 생각도 든다.

AI를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1990년대의 IT붐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4%에 달하는 생산성 향상의 고점이 다가온다는 전망도 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가적 감정을 들게 한다. AI가 그려낼 미래도 그렇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친구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글 또한 작성하는데 AI를 통한 정보 검색, 번역, 요약, 교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 칼럼을 쓰는 ‘생산성’은 이전보다 확실히 올라갔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J네트워크

교통혼잡 해결에 나선 뉴욕



안착희
글로벌협력팀장

다는 속내가 있다.

뉴욕시 혼잡료 부과 목적은 세 가지다.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낙후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쓰겠다는 취지. 하지만 인근 뉴저지 등에서 차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도 사실이다.

대서양 건너 프랑스도 지난해 11월부터 파리 중심부 내 특수 목적 외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사회당 소속의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추진한 교통제한구역(ZTL) 정책이다. 대중교통 수단과 구급차 등 필수 차량이 아닌 경우, 그리고

목적지가 시 중심부인 1~4구역 이내가 아닌 경우 도심 통과가 불허되는 것이 골자다. 차량 통행량을 최대 30%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인데, 시민과 환경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찬성이 있는가 하면 차량 정체를 그저 다른 도로로 몰았다는 반대 여론이 공존한다.

파리와 뉴욕의 교통체증 완화 정책의 성과는 가시적인 효과를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하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대형 사업은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버스, 구급차 등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조치는 과감히 시행해 볼 수 있다. 재노 리버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국장은 이번 정책 실행을 발표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처음에 반발이 컸지만 반려견 분비물 제거, 식당과 바 내 흡연금지, 비닐봉지 사용금지 등을 결국 해냈다. 이번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춘 앞 빌딩 3층

“대선 전 개헌” 야당 원로들도 동의... 이재명 설득하겠다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논설위원



“대통령 탄핵 심판 전 개헌한 뒤 7공 신 헌법 체제로 대선을 치르자.”

지난해 12월 31일 낮 여의도의 한 식당. 전직 국회의장·총리·당대표 12명이 모여 이런 결론을 내렸다. 간담회를 주선한 정대철(81) 헌정회장은 “집권 가능성 높은 민주당 출신 의장·총리들조차 ‘개헌 후 대선’에 적극 찬성했다”며 “지금 이 개헌의 유일한 적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정 회장은 “이 대표가 그제 전화했길래 만남을 제안하니 응했다. 곧 만나 개헌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의원 90%가 이원정부제 찬성

개헌론에 침묵하는 민주당 현 지도부와 달리 민주당 원로들은 ‘대선 전 개헌’에 동의한 게 눈길이다.

김진표·문희상·정세균·박병석·이낙연 등 민주당 출신 의장·총리 전원이 ‘제왕적 대통령 37년의 결과’를 계야 아니냐며 지금 바로 ‘대선 전 개헌’을 촉구했어요. 14일 열릴 2차 간담회엔 개헌안 발의권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해 집심을 낼 뜻을 밝혔는데 그 역시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의 골자요.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가 지난해 5월 회원 1180명에게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물었더니 이원집정부제가 90%, 내각제가 10%였어요.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에 분산하고, 고위 관료 임명권은 상원에 주는 양원제를 골자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영세·권성동 등 여당 지도부도 만날 뜻을 전해오는 등 적극적이네요.”

개헌의 키는 원내 1당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그제 이 대표가 내게 전화해 신년 인사를 하길래 ‘계엄 해제에 노력한 데 경의를 표한다’고 하니 ‘아이고, 큰 형님 고맙습니다’고 해요. 내가 ‘헌정회 간부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요. 곧 만나 개헌 동참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지지율 1위로 대권을 눈앞에 둔 듯한 이 대표가 개헌에 응할까요?



정대철 헌정회장은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이 얽혀 치기 대권을 전혀 예단할 수 없다”며 “분명한 건 대선에 앞서 개헌해야 실종된 정치가 복원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원하는 국민이 70%인데, 이 대표 지지율은 40%에 불과해요. ‘국민의 60%가 지지하는 개헌을 당신이 주도하면 박스권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라 설득하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헌은 대통령 뽑은 뒤에 못합니다. 5년 권력 내놓을 사람 있나. 이번이 유일한 적기입니다.”

윤, “이재명 만나라”하니 침묵

이 대표가 ‘큰 형님’이라 부르는 사연은 뭐가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냈어요. 어느 날 정 후보가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가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선대위 간부들과 이재명 간에 충돌이 일어나더군요. 그래서 선대위 부위원장 김한길(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분도 나서기를 꺼려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재명을 성남시장에 당선되더니 ‘식사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내쫓은 사람이라 주저했는데, 이재명이 ‘존경하는 선배님, 옛날(악연) 싹 잊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한잔했어요. 맏집이 좋은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일방적 우위였던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데요.

“사법리스크 탓에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다’는 이가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야권 지지층에도 절반이 넘는다고 여겨져요. 계엄 파동 직후엔 여론이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엔 민심의 화살이 이 대표에게 돌아갔어요. 그 결과

“민주당 출신 의장·총리들 공감대 이재명 회의론 극복, 개헌이 해법 윤, 선동정치 하면서 줄장부 전략 이재라도 석고대죄 자진 출두를”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거죠. 이 대표는 재판 지연 품수 대선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는 한편, 개헌에 응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치인임을 보이면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박지원은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고 했는데요.

“그제 통화했어요. 같은 동교동계라 반말하는 친한 사이죠. ‘개헌론이 음모라니’라고 따지니 ‘개헌으로 정치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라길래 ‘헌정회가 추진하는 개헌은 음모가 아니잖냐고 하니 ‘그건 그래’라고 해요.”

대통령의 계엄 파동을 평가하면요.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건 윤 대통령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국가 원수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동 정치를 하며 줄장부처럼 변해 안타깝습니다. 이재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진 출두해 수사받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 재임 중 만난 적은요? “대통령이 취임 1년쯤 뒤에 저를 초청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관저로 갔어요. 대통령은 ‘민주당이 막 나가 골치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나는 ‘이재명을 만나라, 아직은 무죄 추정 아닌가’고 조언했어요. 다른 얘기엔 다 답을 하던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해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십번 만났을 때는 말이 없던 사람인데 대통령 된 뒤 만나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졌더군요. 주변에 물어보니 ‘검사 시절에도 말이 많았는데, 정 회장이 어렵어서 말을 삼간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2016년 안철수 의원이 만든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추진했었다면요.

“그때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을 폭로한 ‘죄’로 대구고검에 좌천돼있었죠. 내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널 추천했다’고 전화하니 ‘형님, 진짜요?’라고 물어요. ‘진짜’라고 하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응낙하더군요. 그런데 이틀 뒤 윤 대통령이 내게 전화해 ‘내 행동의 순수성이 망가지고 이상한 놈 될 것 같아 비례대표 안 받겠다’고 뒤집어요. 안철수 대표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90도로 절하며 사양해 무산됐죠.”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내가 의원 시절인 90년대에 ‘서울 법대 후배인 검사 윤석열’이라며 연락이 왔어요. 막걸리 마시며 대변에 친해졌죠. 그가 검찰총장 됐을 때 ‘추미에 법무부 장관에게 담비지 마. 성격이 보통 아니다’고 조언하니 ‘알겠습니다’고 해요. 나중에 ‘제 성질 같았으면 담뱃을 텐데 끝까지 참았습니다’고 하더군요.”

“김부겸·김동연·김관영 주목해야”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아닐까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공천의 30~40%는 비주류에 줬어요. 주류가 망하면 비주류가 대안이 돼야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

황사’ 공천으로 비주류를 전멸시켰으니 문제입니다. 그래도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권 주자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능력 면에서 이재명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아요. 김관영 전북지사도 유능해요. 이 대표가 흑시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셋이 경쟁할 겁니다.”

여당은 대권주자가 있을까요. “인물난이 심하게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대권 주자로) 포섭 중이란 소릴까지 들립니다. 그러나 그 당에도 유망주는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은 정치경험 없고 검사 출신이란 단점이 있으나 계엄 정국에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나이도 젊으니 대권 주자로 기대해볼 만합니다. 오세훈·홍준표도 괜찮은 후보들이죠. 또 지난 연말 별세한 김수환 전 국회의장 상가에 갔는데 유승민이 보이길래 ‘당신, (대선 주자) 가능성이 있다’고 격려하니 웃으며 ‘아버지(유수호 전 민주자유당 의원)랑 정치하셨죠?’라고 해요. 유수호 선배는 13·14대 국회의원 동료였는데 틈만 나면 ‘이치 고뿌’(일본어로 ‘한 잔’)라 적힌 쪽지를 건네곤 해 맥주잔을 자주 기울였어요. 당은 달라도 의원들끼리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를 적으로만 보니 정치가 전염이 된 거죠.”

동교동계였던 김대중(DJ) 정부에서 구속당하는 곤욕도 치렀는데요.

DJ 서거 1년 전인 2008년 그분과 나, 박지원이 부부 동반으로 DJ가 좋아하는 고향집에서 만났어요. DJ가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 미안해’라고 해요. 내가 DJ 정부 시절(98년 경성그룹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최종심에서 무죄 확정)된 데 유감을 표한 거죠. 내가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DJ가 ‘자네가 (2002년) 대선에 나왔다면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 됐겠나?’고 해요. 구속된 탓에 대선 출마가 봉쇄된 것도 안타까웠다는 얘기였죠. 또 DJ는 ‘자네는 통일에 관심이 많았으니 통일부 장관 자리 주려 했는데 왜 안 받았나’고 물어요. DJ가 취임 직후 외교안보 보좌진 A씨를 내게 보내 통일부 장관에 지명할 뜻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나는 청와대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고 응낙할 뜻을 분명히 표명했어요. 그런데 감감 무소식이더니 강인덕 전 중앙정보부 국장이 통일부 장관 되더군요. 그 얘기를 DJ에게 하니 ‘뭐야! A는 내게 정대철은 그 자리 안가겠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는데’라며 ‘아뵐까’를 연발하더군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펠리 지역]

시 설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를 방관했다는 이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것은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자마자 권한대행인 한

덕수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 카드로 압박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뒤이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압박을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무위원 여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행정부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경제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무력화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 방조했다며 고발 정부 무력화 멈추고 경제 살리기 협력해야

지금 입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런데도 ‘수권 정당’을 공인해 온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인 채 권력 다툼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회는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을 일부라도 설득하지 않고선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돌이표처럼 표결을 강행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수사 차질을 비난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 졸속 설치로 수사 체계에 허점이 생긴 탓도 크다. 수사기관이 엄밀한 방식으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도록 여유를 줘도 모자랄 판에 탄핵을 운하며 수사 책

임자인 공수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조급함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3심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조바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야 국민이 수긍한다.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 대통령 수사는 뒤통스런 것이다.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탄핵 협박은 중단하고, 반도체특법 등 시급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

완전히 망가져야 한다



안혜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여당의 행보는 딱 된 대표 발언 그대로였다. 권력의 반성 대신 대중 선동,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대신 혼란을 틈타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대통령 지키기, 최소 봉대로 본질 흐리기, 과거 발언 뒤집기... 아마 적잖은 보수 지지층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도저히 표를 줄 수 없었던 바로 그 이유를 지금 보수를 참칭한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분노를 넘어 좌절과 무기력을 겪은 지난 한 달이었다. 공공의 이익과 모순되지 않도록 권력을 행사해야 할 국가 최고 권력자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시대착오적 계엄 발동으로 국가 안보와 민생을 순식간에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급세 탄로 날 구차한 거짓말, 억지 궤변, 심지어 국민 갈라치기로 분열을 선동하는 여론전까지 거러김 없이 구사하는 걸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계엄 이후 첫 담화(지난해 12월 7일)에서 밝힌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을 끈이끈대로 믿었던 건 아니다.

탄핵소추의견서 수령 거부로 시작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버티기에 들어가 영장 불복과 적법하장식 고발로 이어지는 ‘법꾸라지’의 최고 기술 등을 구사할 거라는 건 사실 오히려 예측 가능한 행보였다. 다만, 새해 첫날부터 극렬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를 띄워 가뜰이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은 이 나라를 더 갈라리 찢어놓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시민과 시민, 시민과 공권력,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해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한국에서 보수 정치는 때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받았을지언정 최소한의 품격이 있었다. 국민이 꾸짖으면 본인의 부덕을 탓하며 일단 고개를 숙였다. 지지자를 방패 삼아 자기 정치적 이득만 차리는 몰염치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선이 이번 계엄을 계기로 무너졌다. 이유가 있다. 계엄 직후부터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뻔뻔해야 한다”며 “권력을 잃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극약무도한 행태가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의 ‘이재명 포비아’다. 이후 대통령과

때마침 이재명 대표는 계엄 전 입법독주는 저리 가라 할 대권 탐욕 아래 탄핵에 탄핵을 거듭하는 헌정 농단 횡포를 일삼고, 무능한 공수처는 제 실력도 모른 채 무리한 수사 욕심을 부리며 수사기관 기리 조율도 안 하고 헌정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온갖 헛발질을 거듭한다. 이런 중구난방 덕에 위법한 계엄 발동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탄핵 절차의 적법 논란만 남았다.

그 결과 정치에 과몰입한 양극단 세력은 사실상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여기 속하지 않은 국민은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이재명 포비아’ 매몰된 국회 보수의 품격 대신 뻔뻔함 택해 ‘카터 법칙’ 기대할 수 있을까

망가질까 두려움에 떠다. 이러다 정말 나라 망가졌다는 공포에 휩싸이다, 문득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

여야 불문 국민은 안중에 없이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도 자기 열달만 추구하는 정치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거꾸로 국민은 각성할지 모른다는 희망이 어렴풋이나마 생겼기 때문이다.

마침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최근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빚낸 ‘카터 법칙(Carter Rule)’이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근본적 변화를 이루려면 극심한 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1970년대 말 카터 정부의 무능에 대중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라 분노로 이어졌기 때문에 레이거노믹스의 번영이 왔다는 것이다.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을 때 비로소 국민은 “이제 그만”을 외친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 점점 더 나빠져 온 거라고 믿고 싶다. **논설위원**

등록금 인상 무조건 막기 전에 대학교육의 질 고민해야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5% 가까이 인상하기로 하자 서울 소재 사립대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는 대학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대학 연계 2유형) 사업 등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동결을 유도했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같은 기조였다. 학생 부담은 줄었지만 대학 재정은 악화일로였다. 우수 교수를 영입하고 첨단 기 자체를 도입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커녕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기도 어려웠다. “대학 시설이 초·중·고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급기야 올해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아도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원칙만 고수하고 있다. 올해로 17년째다.

등록금을 올리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이 나날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적어도 법에 규정된 한도(올해 5.49%)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며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고급 인력을 키우는 것은 대학의 몫인데, 부실한 재정으로 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겠는가. 국가 존망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계속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게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아우르는 교육재정 개혁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분담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선 시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이 통과시켰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해야 하지만, 분담 비율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34배, 중·고생은 1.5배 수준이었다. 반면에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회원국 평균의 64%에 그쳤다. 대학엔 과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돼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된다. 세수 호전으로 교부금 총액은 2019년 55조원에서 2023년 75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학엔 쓸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청사 신축이나 초·중·고생, 교직원 대상 선심성 지출을 한다. 이젠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교육재정의 배분을 고민할 때가 왔다.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만 처리센터 495/66/29/50 교통요지, 콘도 피 울 유틸리티 포함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원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배부: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요미우리, 한국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구독: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타이틀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1월~2월
지금 집 살 좋은 기회!

- 폴스처치 콘도 \$246,900
방1, 화장, 모자이크 근처, 완전 리모델링, 495/66/29/50 교통요지, 콘도 피 울 유틸리티 포함
- 센터빌 콘도 렌트 \$2,100
방2, 화장, 마루, 발코니 29/66/28/50, Hmart, Lotte 인근
-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 렌트 \$1,900
1,250 sqft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림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 센터빌 미용실 \$90,000
- 개인실업 상업중 미장원렌트 \$3,300
1300sqft, 29/66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테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원액 기준 100% 함유

산삼 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위건강엔 마스크



medifree 코팅식이섬유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1oz \$45
4oz \$125

순도 100% 천연 황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기관지노화으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용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용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탁하게~

엘라스티프로

찰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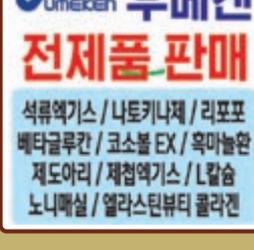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늘환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입습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anuary 8,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매일 30분 걷기, 건강의 시작... 새해 운동화 선물해볼까

‘주중에 힘들었으니, 주말에는 쉴 자격이 있지.’
하루 왕복 2시간 거리를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40대 초반 남성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말에 푼다시고 늦잠과 TV 보기를 즐기는 자신을 위한 변명이다.
주말을 매번 그렇게 보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내가 피곤한 이유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피곤하다고 계속 잠만 자고 쉬기만 하면 근육은 위축되고 심폐 기능이 더 약해져 더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 것이고, 체력이 좋아지면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당할 능력이 향상되고 정신건강도 좋아지는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암 재발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
그는 환자에게 권하던 건강 지식을 스스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셀프 코칭했다. 그날 바로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갔다. 한번 생각을 바꿨다고 습관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산행을 시작하곤 했다. 출퇴근길에도 차 운전보다는 대중교통,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대중교통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걷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시작한 운동의 전환점은 몸의 변화를 일으켜 체중은 줄고 피곤함은 사라졌다. 사실은 지금은 만성질환자나 암 환자에게 자신 있게 운동을 권하는 필자의 과거 이야기다. 그때와 달리 환경이 바뀌어서 주말 등산보다는 매일 달리기를 한다.

우리는 현대 문명에게 달리기와 빠르게 걷기 기회를 빼앗긴 대가로 심장병·중풍·당뇨병·우울증·고혈압, 각종 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은 신체적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극복 및 정서적 안정 등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질병에 걸려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 잘 관리가 되더라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의학적 치료 효과와는 다른 긍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최근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걷기 실천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6%에 불과하다.

유산소 운동은 현대인의 각종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예방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은 독자들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 최신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다.
우선, 유산소 운동의 정확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40세 이후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 기대수명이 5년 이상 길어진다는 1시간만 더 걸어도 6.3시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 운동의 사망 예방 효과는 신체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게서, 그리고 고령층에서 가장 큰 건강과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중등도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75분 이상을 권장한다. 나이에 따른 권장량은 동일하다.
운동 거리·시간 등 단계적으로 늘려야
운동을 매일 해야 하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해도 괜찮은가? 미국심장협회가 발간하는 ‘순환(Circulation)’에 2024년 9월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운동량을 따른다면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건강 효과가 같았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
▶ 4면 ‘새해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에게 달리기와 빠르게 걷기 기회를 빼앗긴 대가로 심장병·중풍·당뇨병·우울증·고혈압, 각종 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등도 이상의 신체 활동은 신체적 기능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극복 및 정서적 안정 등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질병에 걸려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 잘 관리가 되더라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의학적 치료 효과와는 다른 긍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재발을 막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최근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걷기 실천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6.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겨울 감기’ 방광염... 춥다고 물 적게 마시고 소변 참으면 감염 위험 커져

방광염 올바른 대처법

소변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따가운 통증, 보고 나서도 전혀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조금 전에 다녀왔는데도 또다시 화장실을 찾게 되는 절박함은 방광염 환자들의 고통이다. 겨울 감기로도 불리는 방광염은 면역력이 약해질 때 기승을 부린다. 피로·스트레스, 과도한 운동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신체 방어 체계가 약화하면 방광으로 침입한 세균을 적절히 억제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은 해부학적 구조상 방광염에 취약하다. 증상이 반복될수록 만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방광염에 대처하는 올바른 정보를 알아본다.

이민영 기자

○ 물 많이 마시면 예방·치료에 도움 된다

날씨가 추우면 소변 참는 습관이 생기기 쉽다. 야외에선 화장실이 추운 데다 옷차림이 두꺼워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아지면 방광이 수축해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지는데, 이를 참는 경향이 커진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방광에 좋지 않다.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은 방광에 침입한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서다. 소변을 참을수록 방광 내 세균이 늘어나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지 말고 바로 방광을 비우는 습관이 필요하다. 화장실 가는 게 귀찮다고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방광염 예방에 해롭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해져 수분을 잘 빼앗긴다. 이럴 때 수분 섭취마저 줄면 소변이 진해지고 균 감염 위험이 커진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변량이 늘어 방광에 세균이 정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 여성호르몬과는 관련없다

방광염 환자의 약 95%는 여성이다. 지난해 방광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169만5519명 중 여성이 159만3525명이었.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식기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같은 기관으로, 아래로는 소변이 나가는 길(요도)과 연결돼 있다. 위로는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과 이어져 있다. 여성의 요도는 남성보다 짧고 입구가 질·항문과 가까이 있다.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기 쉽다. 질·항문 주변의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간다. 또 폐경 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방광의 방어력이 약해진다. 이 시기에는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들어 방광염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된다. 질 내 환경을 개선하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 사용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된다.

○ 변비가 방광염을 부른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의 90% 이

상이 대장균이다. 최근 방광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방광과 대장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변비가 있으면 대변 속 세균 밀도가 높아져 방광염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염 치료 시 변비가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뇨 후 위생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앞에서 뒤로 닦는 방법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된다. 질 세정제를 과도하게 쓰면 요도 주변의 정상 세균까지 제거돼 오히려 방광염에 걸리기 쉬워진다.

여성이 해부학적 구조상 더 취약 대장균 연관, 변비 치료하면 효과 처방받은 항생제 끝까지 복용해야

✗ 심각한 합병증은 없다

방광염이면 소변 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된다.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는 정해진 기간 끝까지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약 먹기를 중단하면 항생제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약국에서 임의로 진통제, 소염제를 사서 먹으며 증상을 참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증을 잠시 줄여줄 뿐이다. 방광염 치료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세균이 신장까지 퍼지면 신우신염이

Tip

방광염 예방 습관

- 소변 오래 참지 않기
- 배변 후 앞에서 뒤로 닦기
-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과일 섭취
- 질 세정제는 주 2회 이하 사용

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한다.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패혈증과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방광염 증상과 더불어 옆구리 통증과 발열이 함께 나타나면 신우신염을 의심해야 한다.

△ 크랜베리 주스·캡슐이 도움된다

크랜베리는 방광염 예방에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크랜베리에 포함된 프로안토시아니딘(PAC)이라는 식물성 화합물 덕분이다. PAC는 방광염의 주요 원인균인 대장균이 방광 벽에 붙지 못하게 막아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 방광염 예방에 크랜베리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6mg의 PAC를 섭취해야 한다. 생크랜베리는 신맛이 강해 단독으로 상당량을 먹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다. 무설탕 고농축 크랜베리 주스나 캡슐 형태의 제품이 효율적인 선택이다.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된다. 하지만 예방 효과엔 개인차가 크다. 과신해선 안 된다. 또 크랜베리는 이미 발생한 방광염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 모든 방광염은 증상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방광염도 있다. 이를 무증상 세균뇨라고 한다. 방광이나 요도에 세균이 있어 소변에서 검출되지만 방광염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주로 노년 여성이나 임신 중 여성에게 흔하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지는 독실을 따져 결정한다. 대부분의 무증상 세균뇨는 신체의 자연 방어 작용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비임신 여성과 노년층에선 보통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임신부는 예외다.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신우신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비뇨기 시술을 앞둔 환자도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권장한다.



출처: GettyImagesBank

성대 마비 원인은 다양, 음성 이상 아닌 호흡곤란도

성대 마비는 음성 이상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성대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신경의 기능이 소실돼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성대 한쪽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측성 성대 마비, 성대 양쪽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양측성 성대 마비로 진단한다.

성대 마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갑상샘 절제술 같은 수술 도중 되돌이 후두 신경(성대 문을 여닫는 근

육을 지배하는 신경) 또는 미주 신경이 견인되거나 손상돼 발생할 수 있다. 후두암·폐암·식도암·갑상샘암·두개저종양 등으로 신경이 침범돼 생기기도 한다.

이뿐 아니다. 통풍·결핵·갑상샘기능항진증 등도 원인이 된다. 뇌졸중·파킨슨병 등의 신경 질환이 있을 때도 성대 마비가 나타나곤 하는데, 여러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특

발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성대 마비일 때 가장 흔한 증상은 음성 변화지만 연하 곤란, 천명(쌉쌉거림)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한다. 양측성 성대 마비의 경우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기본적으로 후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성대 운동을 확인한다. 이때 성대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으면 성대 마비로 진단내릴 수

있다. 여기에 성대 마비를 유발하는 원인을 확인하려면 영상학적 검사가 도움된다. 경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시행해 미주 신경과 되돌이 후두 신경의 전 주행을 확인하고 흉부 X선을 촬영해 폐 관련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식이다.

성대 마비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일측성 성대 마비로 진단되면 쉼목소리를 호전하고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가 시행된다. 치료법은 크게 경과 관찰, 음성 치료, 수술 치료 등으로 나뉜다. 명확한 신경 손상

이 없다면 성대 운동이 자연 회복될 때까지 6~12개월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수술은 성대 사이의 틈이 크고 자연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고려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성대 내 주입술을 꼽을 수 있다.

양측성 성대 마비의 치료는 기도를 넓혀 가벼운 활동이나 경미한 상기도염에서도 안정적인 기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윤주현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위·대장 내시경으로 암 씨앗 제거,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90% 예방

암 직전 단계 대처법 암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병하지 않는다. 서서히 세포에 이상이 생겨 악화하다 암 전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긴 세월을 걸친 생활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간암·대장암·위암·자궁경부암은 한국암검진 항목에 해당할 만큼 흔히 발생한다. 마지막 위험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해 적절한 대처에 나선다면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암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치료·예방법을 알아본다.

간경변증 진단 땐 6개월마다 검진
40세 이후엔 위·대장 내시경 필수



출처: GettyImagesBank

간암 선형 질환 간경변증
간암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선형 질환은 간경변증이다. 정상적인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상태다. 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고, 섬유성 변화가 생기면서 간의 형태가 울퉁불퉁해진다. 다행히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위험 요인이 분명하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지방간에서 간염,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80%에서 간경변증이 나타난다. 주요 원인으로는 B형·C형 바이러스 감염과 음주, 비알코올 지방간 등이 있다.

간은 웬만큼 손상되더라도 별다른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정기 검진을 통해 간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간 초음파 검사로 간의 모양 변화와 국소 병변을 관찰한다. 일반 비만이거나 간경변증으로 인해 초음파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CT나 MRI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만 40세 이상이면서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거나 연령에 상관없이 간경변증을 진단받았다면 6개월 단위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간염이나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암 종양 지표 등의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지, 새로운 병변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경변증 치료의 목표는 섬유화의 진행을 막고 간 기능 저하를 최대한 늦추는데 있다. 무엇보다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C형 간염의 경우 약물을 통해 치료한다.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접종 이후엔 체내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 혈액·분비물을 통한 감염에 주의하며 발병 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음주는 간 손상을 부르는 주범이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절주를 실천해야 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과 관련 있어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

대장암 씨앗인 대장 용종 제거
대장암은 대부분 용종 단계를 거쳐 생긴다.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만 잘 제거하면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 조기 진단과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대장 상태를 내

시경으로 꼼꼼히 살펴면서 용종이 자라지 못하도록 씨앗을 제거한다.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부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대장암 가족력이나 증상이 없고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이면 다음 검사 시기는 5년 이후가 적절하다.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면 개수·크기·종류에 따라 추적 검사 주기가 달라진다. 보통 용종이 1~3개 발견되면 3년 이내, 10개 이상이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 게 권장된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땐 나이와 관계없이 즉시 검사를 받는다.

특히 최근엔 20~40대 젊은 대장암 환자 수가 늘었다. 젊은 대장암은 대부분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한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대장암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지방 음식은 대장 건강의 최대 적이다. 소고기·돼지고기 등 붉은색 고기와 소시지·햄·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주시므로 섭취하면 위험하다.

붉은 육류 섭취는 일주일에 520g으로 제한하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닭고기·생선·달걀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 고기를 구울 때 탄 부분이나 있다면 잘라내서 먹고, 채소를 곁들인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대장항문외과 임대로 교수는 “스트레스와 지나친 공복은 소화액 분비를 자극해 장벽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 면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암도 전 단계 위 선종 주의
위암도 전 단계가 있다. 대장암의 용종과 같은 위 선종이 그렇다. 위 점막에 발생하는 위 선종은 분화도(변이 정도)에 따라 저등급 이형성증과 고등급 이형성증으로 나뉜다. 고등급 이형성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암으로 진행해 암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위 선종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망가져 암세포로 바뀌는 것이다. 위암은 손상된 위 점막이 위축되거나 위 점막 세포가 소장·대장의 점막 세포와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위 선종을 발견하면 모두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위 선종이 있다고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조기 진단을 위해선 위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40세 미만이라도 위암 검진을 원

한다면 위 내시경 검사가 권장된다. 위축성 위염·장상피화생 등 위암 고위험군이 되면 특히 검진에 힘쓴다. 식습관도 점검해 봐야 할 주요 항목이다. 맵고 짠 음식처럼 자극적인 식습관에 노출돼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한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지양하고, 음식은 가급적 조미하지 않은 상태로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또한 헬리코박테리아가 있다면 미리 제균하는 것이 이롭다.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수비 교수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위험 발병률을 봤을 때 헬리코박테리아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당장 제균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10~20년 헬리코박테리아를 갖고 있으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등이 생겨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암 전 단계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단계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된 후 자궁경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이형성증은 정상과 종양 중간에 있는 암 전 단계로 분류된다. 사춘기 이후 여성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25~35세 여성에게 흔히 발병한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산부인과 경민선 교수는 “HPV는 감염돼도 대부분 2년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약 10%는 남아 있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유발한다”며 “기저 질환이 많은 환자일수록 HPV가 사라지지 않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대부분 경과 관찰을 하지만, 2단계부터는 치료가 필요하다. 자궁경부를 원추 모양으로 절제하는 원추 절제술 등을 받는다. 중증인 3단계에서는 자궁 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질환이 그렇듯 이형성증이 있어도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끔 비정상적인 출혈이 나거나 성교 시 약간의 질 출혈과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형성증과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종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80~90%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은 바이러스에 걸린 뒤에 접종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찍 맞을수록 좋다.

신영경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4기 대장암 환자도 적극적 다학제 진료시스템으로 완치 기대”

인터뷰 민병욱 고려대구로병원 대장암센터장 대장암은 발병률과 생존율이 모두 높은 두 얼굴의 암이다. 국내 암 발생률 2위를 차지하지만, 수술 기술과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치료 예후가 좋아졌다. 특히 고려대구로병원은 남다른 대장암 치료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수술이 어려운 말기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선도적으로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고려대구로병원 민병욱 대장암센터장은 “대장암은 4기여도 꼭 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다른 장기로 전이되도 절제할 수만 있다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욱 고려대구로병원 대장암센터장은 “고려대구로병원은 대장암 3기와 4기 환자의 치료 성적이 국내의 다른 의료기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대장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대장암의 표준치료는 수술이다. 암이 전이되더라도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반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내과와 외과를 포함한 여러 관점에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 다학제 진료는 다양한 진료과가 한자리에 모여 수술·항암제·방사선 등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극적인 치료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장암에 대한 다학제 진료는 필수적이다. 환자 생명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구로병원은 일찌감치 다학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암병원이 문을 연 2014년 이전부터 활발한 협진을 구현해 왔다. 병원 규모를 키우기보다 내실 있는 중증 질환 치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었다. 대장암의 경우 8개 진료과 의료가 모여 환자 상태에 따른 치

료를 찾아 완치를 이뤄내고 있다. 한 환자가 1년에 7회 이상 다학제 진료를 받기도 한다. 과별 경계를 허물기 위해 외과 의료가 내과로 한 달간 파견을 나가는 것도 특별하다. 대장항문외과와 종양내과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보면서 수술 시기를 놓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치료 진행 과정도 2주 이내로 앞당겼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의 만족도와 치료 성적을 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존율은 얼마나 높아졌나.
 “3기와 말기 암에서 치료 성과가 두드러진다. 1~2기 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 간 생존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대장암 3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7% 이상이다. 4기 대장암의 경우 4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평균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3기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이 82%, 4기는 20% 내외에 그친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다학제 진료의 중심은 팀워크다.

구로병원 대장암센터는 명의를 내세우지 않고, 명팀을 추구한다. 의사 개인의 술기와 수술 기법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따라서 명팀이 구성돼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타이밍을 찾고 세부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구로병원에선 개인기와 조직력을 고루 갖춘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 의료가 머리를 맞대면서 치료 성적을 올린다. 의료가 모두 바쁘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해 최소 주 2회 다학제 회의에 참석한다. 수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여러 진료과에서 함께 논의하다 보면 해법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중증 대장암 환자가 찾아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받고 일상을 회복한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로봇 수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장암 중에서도 직장암에서 로봇 수술이 주로 이뤄진다. 골반 깊숙이 있는 직장을 암을 제거할 때 신경이나 비뇨기가 손상되면서 항문 기능,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다. 정확한 수술이 중요한 이유다. 로봇 수술은 기존에는 보지 못하던 곳까지 보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 회복도 빠르지만, 수술비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하다.
 “말기 대장암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구로병원은 최소 공간에서 최대 효

율을 냈던 병원이다. 지금까지의 의사의 봉사와 헌신으로 다학제 진료 체계가 잘 정착됐다. 이제는 다학제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는 규모와 질적 발전을 함께 도모해 암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이 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맨과워(인력)를 강화해야 한다. 우수한 의진을 양성하면서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신영경 기자

▶ 1면 '새해 운동'에서 이어집니다

등산이나 달리기보다 걷기를 한다면 하루 얼마나 걸어야 하나? 매일 최소 4000보 이상 걸어야 하고, 8000보까지는 많이 걸을수록 건강 효과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루 8000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주당 약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한다. 대신 빠르게 걸어야 한다.
 만성질환이 오래된 경우에는 운동부하검사나 심장 CT 스캔을 통해 관상동맥들의 협착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미리 본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
 활동의 제약이 많은 시대에 줄어든 운동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나름의 요령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에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따르면 도움이 된다.(세번째 그래픽 참고) 시작이 반이다. 일단 운동복을 입고 30분 걷기부터 시작하면 된다. 힘들면 매일 15분 산책부터 시작해 6개월 목표로 단계적으로 거리·시간·속도를 늘려나간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대신 건강기능식품으로 때우려 하는 분들이 많다.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분에게 새해에는 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운동화나 운동복을 사거나 선물하자. 진정한 건강을 배려하는 선물이 될 것이다.

‘사망률 1위’ 폐암, 조기 진단이 수술만큼 중요합니다

폐암은 높은 사망률로 악명 높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실제 2023년 한국내 폐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5명으로 전체 암 사망률 중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37.5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셈이다(2023년 국내 사망원인 통계).
 반대로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38.5%에 불과하다(2021년 국가암등록 통계).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평균 72.1%인 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폐암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다. 수술로 암세포를 포함한 폐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수술 후 삶의 질을 고려해 최소 부위만 절제하거나 시간 단축을 통해 회복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특히 폐암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선암은 주로 수술로 치료한다.
 폐암은 1기가 초기, 3기가 중기, 4기가 말

기로 분류되는데 1~2기는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완치의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필요한 경우 항암치료나 약물치료가 추가되지만,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수술 후에도 몸이 적응하면서 폐 기능이 향상되고 보완할 수 있다. 6개월에 걸쳐 폐 기능이 10% 정도 회복되는데, 수술 전과 후 꾸준한 운동이 특히 중요하다.
 수술이 아니더라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최근 폐암 치료에 표적 항암치료나 면역 항암치료 등 새로운 항암 전략이 적용되면서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연과 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늘고 있다. 폐암이 완치되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조절하면 되는 하나의 병인 것처럼, 이제는

폐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중 하나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된다.
 폐암 치료에 있어 수술만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폐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이 쉽지 않다. 조기에 진단되는 환자는 전체의 5~15%에 불과하다.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다. 저선량 CT는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6분의 1로 최소화한 장비로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국가암검진에 따라 55세 이상 인구 중 30년 이상 매일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운 고위험군은 2년마다 무료로 저선량 흉부 CT를 받을 수 있다. 5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부모님이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30~40대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서종희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예약 문의

703.394.4818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원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건강 칼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50대 초반의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이유는 밤마다 코를 골아서 있는데, 환자의 배우자에 의하면 환자는 밤마다 매우 심하게 코를 골며, 또한 가끔 호흡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매우 심해졌으며, 환자 본인도 언제 부턴가 아침에 눈을 떴을때 매우 피곤하여 한숨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간단한 설문조사인 주간 졸음지수(Epworth Sleepiness Scale, ESS)를 통해 환자의 졸음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상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 Apnea, OSA)이라는 수면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가장 흔한 형태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잘 때 정상적으로 공기가 토하는 통로, 즉 기도(Airway)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목젖, 편도, 혀 등이 뒤로 처지며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기도는 깨어 있을 때 보다 수면 중에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의 경우 수면 중에 기도가 심하게 좁아짐으로 호흡 중에 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막아 코골이(Snoring)와 수면 무호흡증(Sleep Apnea)이 생기게 된다. 기도가 심하게 좁아져서 완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전히 기도의 벽이 서로 붙어버리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이때 호흡이 자주 멈추는 가운데 코를 고는 중간에, 순

간 잠자는 사람이 죽은 듯 조용해지게 된다.

의학적으로 수면 무호흡 장애는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의 원인으로는 정보보다 턱이 작은 경우, 혀나 편도선이 큰 경우, 목젖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처럼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는 경우와, 과체중으로 과다한 목의 지방조직이 기도를 압박하여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Obesity), 나이가 많은 경우(Old Age), 남성(Male), 당뇨(Diabetes), 폐경 여성(Menopause),

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쇄성 무호흡증이 매우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2-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본 환자의 경우 수면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 곧바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수면무호흡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고혈압, 뇌졸중 및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시니어

소셜 2.5%·메디케어 5.9% 인상, 시니어에 부담

<파트B>

소셜시큐리티 변화와 의미

새해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새 규정이 적용된다. 소셜연금의 특성상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셜연금 수령액과 크레딧을 받는 소득 등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된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와 함께 소셜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공약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있더라도 2026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는 수령액과 세율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소셜연금은 2.5% 인상된 반면 메디케어 파트B는 5.9% 인상돼 연금 의존도가 높은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득을 찾기 어려운 시니어들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인플레이션에 불리하다.

시니어시민연맹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시니어의 65%가 매월 최소 2000달러 이상 지출한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3년의 55%에서 증가한 수치다. 시니어시민연맹은 "생활비 상승으로 시니어들은 작년보다 매달 더 많은 수입을 생계유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B 비용 상승도 시니어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메디케어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파트B 보험료는 5.9% 즉, 10.30달러 오른 월 18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메디케어 인상분만 해도 COLA 2.5% 인상에 따른 소셜연금 전체 인상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입과 지출을 따져 재정상황을 파

악하고 필요하면 지출 등을 조정해 대비해야 한다.

SSA에 따르면 소셜연금 2.5%의 증가로 시니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49달러 늘어난다. 월평균 지급액은 1927달러에서 1976달러로 늘어난다. 부부의 경우 75달러가 늘어 월 수령액은 3014달러에서 3089달러로 오른다.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수령액을 늘리려는 노력도 있다. 밥 케이시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시니어 혜택과 COLA 증대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COLA 인상을 결정하는 물가 상승률에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비용을 실제로 반영해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로 상정됐다. 62세 이상 시니어가 지불하는 가격을 더 정확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2. 내 나이에 맞는 규정 확인
가주에서는 매달 약 600만 명이 소셜연금을 받는다. 새로운 해가 시작

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완전은퇴연령(FRA)에 도달하는 이들은 1958년 5월 2일~1959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시니어다.

올해 FRA가 되는 연령은 다음과 같다. 1958년생은 66세 8개월부터, 1959년생은 66세 10개월부터 FR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대 연령층이다. 1955년생은 66세 2개월부터, 1956년생은 66세 4개월부터, 1957년생은 66세 6개월부터 FRA가 되기 때문에 이미 100% 수령연령에 들어갔고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67세부터 100%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액이 적더라도 조기 은퇴를 원하면 62세부터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FRA 이후로 수령을 늦출 경우 추가 근무 연도만큼 소셜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령액이 120%까지 늘어난다.

또 올해 59세 6개월이 되면 국제청(IRS)이 부과하는 조기인출 벌금 10%를 내지 않고 은퇴계좌인 401K나 IRA를 찾을 수 있다.

3. 소셜연금 크레딧 기준 변화
2025년에는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획득하기 위해 더 많은 수입을 벌어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국은 충분한 크레딧이 있어야 연금을 지급하는데 혜택 자격을 얻으려면 연간 최대 4개의 크레딧, 모두 40개의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이 크레딧은 소셜연금뿐 아니라 장애 혜택, 메디케어, 생존한 가족의 혜택 자격을 결정할 때도 근거로 사용된다.

소셜연금을 결정하는 크레딧 1개를 얻으려면 지난해에는 1730달러를 벌면 됐다. 올해는 1810달러로 80달러가 인상됐다. 한해 최대치인 4개 크레딧을 쌓으려면 7240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 금액은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2026년에는 더 오를 것이다.

소득이 더 많아서 4개의 크레딧 기준을 넘어간다고 해도 크레딧은 그 이상 쌓이지 않는다.

크레딧이 4개를 넘어선다고 혜택이 늘지는 않는다. 크레딧을 얻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의 기준이 올라갔다는 의미다. 소셜연금 지급액은 일하는 동안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4. 사회보장세 상향선 상황
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한도가 올해는 17만6100달러로 인상된다. 지난해의 16만8600달러보다 7500달러 올랐다. 인상률로는 4.4%로 지난해의 5.2%는 낮아졌다.

따라서 올해 연소득이 17만6100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에서 17만6100달러까지만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한도액은 전국 평균 임금지수에 따라 상향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며 그만큼 더 많은 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 사회보장세율은 6.2%다.

소셜시큐리티와 달리 메디케어 세금은 과세 상향선이 없어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표준 메디케어 세율은 개인 기준 1.45%다. 상향선은 없지만 고소득자에게는 추가 세금 0.9%가 적용된다. 싱글의 경우 20만 달러까지는 1.45%를,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엔 0.9%를 과세한다. 부부 공동 신고는 25만 달러까지는 1.45%를, 그 이상의 소득엔 역시 0.9% 세율을 적용한다.

인유회 직원기자

1. 물가 조정분 소폭 인상 영향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2025년 소셜연금 물가 조정분(COLA)이 2.5%로 4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 되면서 은퇴한 시니어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정분은 3.2%였다.

COLA는 노동통계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가운데 7~9월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 올해 조정분이 낮았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의미다.

소셜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것은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요한 지출이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실이 시니어에게는 고충이다. 주거와 각종 보험, 서비스, 수리, 식료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의 가격 상승은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올랐다. 더구나 대체 소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9%	42.9%	2.3%	0.0%
매우물음	당뇨	노화사각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뼈

엄지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가락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뒤꿈치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누우면 통증

허리

엎드리면 통증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그룹 세븐틴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음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데뷔한 이들은 이듬해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은 후 올해까지 대상 2개를 포함해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사진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

세븐틴, 2년 연속 음반대상 ... 음원킹은 '슈퍼노바' 에스파

그룹 세븐틴이 2년 연속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슈퍼노바' '아마켓톤' '업'(카리나 솔로곡) '위플래시'로 연달아 음원차트를 휩쓸었던 에스파는 첫 음원 대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세븐틴은 5일 일본 후쿠오카(福岡) 미즈호 페이퍼 돔에서 진행된 '제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이하 골든디스크) 음반 부문 시상식에서 미니 12집 '스필 더 필스로 대상을 품에 안고 "이상을 받게 해준 캐럿(CARAT·팬덤명)이 우리의 자랑이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이야기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멤버들은 대체 복무 중인 멤버 정한도 언급하며 "모두 함께 받는 상이다. 이 상의 무게만큼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세븐틴이 되겠다"고 각오했다.

이들은 30회 신인상을 시작으로 31회부터 39회까지 대상 2번을 포함해 '10년 연속 트로피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지난해 구보(발매 후 6개월 이상 지난 앨범) 포함 연간 1000만장에 육박하는 누적 앨범 판매량을 보였으며, '2024 빌보드 뮤직 어워드'서는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일과 5일 양 일에 걸쳐 음원과 음반 부문으로 나눠 개최됐다. 성시경·문가영·차은우가 진행을 맡았고 이틀간 약 6만 명의 관객이 시상식장을 찾아 공연을 즐겼다. 흥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배우 박보검·박은빈, 전 야구선수 이대호는 시상자로 참석해 K팝 아티스트들을 응원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예도기간에 따라 음원 시상식은 6일 오전 10시에, 음반은 7일 오전 1시 20분 JTBC와 네이버TV, 치지직에서 녹화 방송됐다. 추후



1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오른 에스파. 음원과 음반 양쪽에서 두 개의 본상 트로피를 챙긴 2 아이브. [사진 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



JTBC2·JTBC4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수상한 대부분의 가수들은 소감에 앞서 애도와 위로의 말로 추모했다. MC 성시경은 "고통과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음악을 통해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위로하며 묵념으로 마음을 나눴다. 음원 대상을 받은 에스파는 "여객기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우리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에스파는 130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첫 정규앨범 '아마켓톤'과 타이틀곡 '슈퍼노바'로 음원 대상, 음원 본상, 음반 본상까지 3관왕에 오르며 대세 그룹임을 입증했다. 멤버들은 "새해부터 대상을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 올해도 자주 찾아뵈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아이들과 아이브 또한 지난해 대중성을 보여주는 음원 시장과 팬덤 중심의 음반 시장에서 고루 사랑받은 걸그룹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음원과 음반 본상을 모두 받은 아이브는 "최근 첫 월드투어로 꿈의 무대인 도쿄돔에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는 멋진 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여자)아이들은 밀리언 셀러를 달성한 정규 2집 '2'로 데뷔 7년차에 첫 음반 본상을 거머쥐었다. 수록곡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로 음원 본상을 추가했으며, 멤버 우기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까지 3관왕의 기쁨을 안았다.

'밤양갱'으로 히트한 비비, '역주행의 아이콘' 데이식스는 골든디스크에 첫 참석해 음원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데이식스는 베스트 밴드상까지 두 개의 트로피를 거머쥘 후 "많은 음원 보내주시는 팬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비비는 "공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음악할 수 있게 심연에서 꺼내준 사장님 타이거JK와 윤미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일릿과 투어스는 신인상과 함께 음원 본상까지 트로피 2개를 챙겼다. 또 다른 신인상 2개는 YG 양현석 총괄이 제작한 베이비 몬스터, 엔시티의 마지막 유닛인 엔시티 위시가 받았다. 100% 팬 투표로 선정되는 인기상엔 버추얼 보이그룹인 플레이브가 호명됐고 여자 인기상은 르세라핌에 돌아갔다.

전년도 음원 대상을 받은 뉴진스는 음원 본상과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어도어와의 공식적인 마지막 스케줄이었던 골든디스크 무대까지 모두 마친 멤버들은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 계속 응원해달라"고 소감을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지난해 11월 29일자로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상은 2023년 11월 초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발매된 음원 및 음반을 대상으로 했다. 수상자는 2024년 11월 30일까지의 음반 판매량 및 음원 이용량을 집계해 반영한 정량평가(60%)와 골든디스크 집행위원·가요담당 기자·음악프로그램 PD·대중음악평론가·국내 유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40%)를 합산해 선정했다. 황지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임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ssana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임성재, PGA 상금 3000만 달러 돌파... 최경주 기록 갱파

(약 441억원)

개막전 더 센트리서 3위 차지
매년 30개 대회 출전 '철인' 별명
우승은 일본 마쓰야마에 돌아가
35언더파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

임성재(27)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3000만 달러(약 441억원) 고지에 올랐다. 최경주(55)의 한국 선수 최다 통산 상금(3280만 달러) 기록 경신을 눈앞에 뒀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플랜테이션 코스 옛 카팔루아(파73·759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개막전 더 센트리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 최종합계 29언더파로 3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날 8타를 줄여 합계 35언더파를 기록한 마쓰야마 히데키(33·일본)가 우승, 32언더파의 콜린 모리카와(28·미국)가 준우승했다. 이 대회에는 지난 시즌 우승자들과 페덱스 컵 랭킹 상위 50명 등 모두 59명이 출전했다.

우승은 놓쳤어도 임성재는 상금 136만 달러(약 20억원)를 받아 통산 상금 3125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PGA 투어 상금이 최근 크게 늘기는 했어도 지금까지 3000만 달러를 넘긴 선수는 임성재 등 47명이다. 임성재가 155만 달러만 추가하면 최경주의 한국인 최다 통산 상금 기록도 넘어선다. 역대 최다 통산 상금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미국)의 1억 2099만 달러(약 1779억원)다.

2018년부터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임성재는 매년 30개 안팎의 대회에 출전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체력 부담이 있지만, 좋은 성적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돌며 출전 대회 숫자를 늘렸다. 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상금을 모았고, '아이언맨(철인)'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임성재는



PGA 투어 개막전 더 센트리에서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마쓰야마는 35언더파로 PGA 투어 72회 대회 최다 언더파 기록을 세웠다. [AFP·연합뉴스]

“개막전을 3위로 끝내 정말 기분 좋다. 올 시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라며 “3년째 우승 소식이 뜸한데, 우승은 하고 싶다고 찾아오지는 않더라.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시즌을 맞겠다”고 말했다.

개막전 우승 트로피는 마쓰야마가 가져갔다. 35언더파는 PGA 투어 역대 최다 언더파 신기록이다. 1타 차 단독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마쓰야마는 3번(파4) 홀에서 107야드짜리 행운의 이글샷을 성공시켰다.

전반 두 타를 더 줄인 마쓰야마는 후반 막판 쐐기를 박았다. 모리카와에게 2타 차로 추격을 당하던 16번(파4) 홀에서 날카로운 어프로치로 공을 핀 2.5m

앞에 붙였다. 버디로 홀을 마무리하면서 간격을 3타로 벌렸다.

이어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해 개막전 우승을 자축했다. 통산 11승. 우승 상금은 360만 달러(약 53억원)이다.

이번 대회로 새 시즌을 개막한 PGA 투어는 오는 8월까지 모두 36개 대회를 치른다. 이후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개 대회를 통해 왕중왕을 가린다. 메이저대회로는 4월 마스터스, 5월 PGA 챔피언십, 6월 US오픈, 7월 디오픈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그니처 이벤트로 불리는 특급 대회는 이번 대회인 더 센트리를 포함해 모두 8개다. **고봉준 기자**



임성재

PGA 투어 풀시드 125→100명... '이 빠진 호랑이' 숨는다

20%는 다음 시즌 출전권 잃어
48명 소수정에 LIV 골퍼서 영향

지난 3일 새 시즌을 시작한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 참가한 선수들 마음이 급하다. 지난해까지는 페덱스 랭킹 125위까지 다음 시즌 출전권을 받았다. 올해는 100위까지만 받는다. 바뀌 말해 올해 풀시드 선수 중 20%는 내년 이거 우즈 등 PGA 투어 스타급 선수 중심의 정책위원회 결정이다. 1980년대 초까지 PGA 투어 풀시드 선수는 60명이었다. 상위 60명을 뺀 나머지는 월요

예선을 치렀다. 대회장까지 갔다가 예선에서 떨어져 빈손으로 돌아가는 선수가 대부분이었다.

PGA 투어는 1982년 풀시드를 125명으로 늘렸다. 중하위권 선수를 배려한 일종의 복지정책이었다. 풀시드가 많으면 평범한 선수도 비교적 안전하다. 적으면 엘리트 선수에게 유리하다. 풀시드가 늘면 기존 선수의 기록권이 보장된다. 줄면 신인에게 유리하다. 이번 조치로 스타 선수라도 빼앗아하면 자칫 시드를 잃을 수 있다. 그들도 시즌 초반부터 대회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해 중간 정도 성적으로 오랫동안

안 버틴 베테랑 등은 도태될 전망이다. 반면 신인은 기회가 늘어난다. 그 전까지는 투어 적응도 어려운데 기존 선수까지 많아 될 경기가 적었다.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일이 잦았다.

전체 경기 시간도 줄어든다. PGA 투어는 풀시드 축소에 맞춰 한 경기 최대 출전 인원을 156명에서 144명으로 줄인다. 기상이변 등으로 경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선수가 줄면서 정상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상위권 선수 위주로 경기할 수 밖에 없어 팬들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유명 배우가 출연할 때 영화나 드라마

의 흥행 가능성이 커지듯, 무명 선수보다는 잘 알려진 선수가 우승할 때 사람들은 더 집중한다.

개천에서 용 나올 일은 줄어든다. PGA 투어는 각 대회의 월요예선을 없애거나 합격자를 줄인다. 월요예선 참가자를 '토끼(rabbit)'라고 불렀다. 본 대회 전인 일요일에 일찌감치 도착해 월요일에 하루짜리 대회를 치르고 총총히 떠난다는 뜻에서다. 월요예선은 실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상징'이었다. 간혹 '신데렐라 스토리'도 나왔다. PGA 투어 측은 “월요예선 출신 우승자는 2019년 코리 코

너스 이후로 없다. 또 통과자의 65~70%가 본 대회에서 컷오프된다”고 무용론을 꺼냈다.

풀시드를 줄이는 건 군살을 빼 경기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의 구조조정이자, 미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 투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플레이어 임팩트 프로그램, 시그니처 이벤트 창설 등에 이어 또 다른 엘리트주의 이자 재능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몰아주려는 제도적 변화다. 48명 소수정에 LIV 골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풀시드에 든 100명과 나머지의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Healthy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삼보스프링 북대/워튼 센터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대/챔틀리에서 10분, 헨리에서 20분 거리

궁금한 기사
중앙일보 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8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움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션니스트, 액티비티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속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 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엘리콧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콧 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볼톤스빌 MD (엘리콧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방2/부엌/화장실 11/2/택\$1,700 1층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룸 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 반 지하 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 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콧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콧시티 타운홈 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룸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 방4, 화.2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룸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 별도/샤워 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 인터넷 일체, 유포 \$800, 1월 입주, 직장인 남자 703-350-1986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엔 데크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버튼스빌 엘리콧시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443-983-8100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 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사업체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택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모집 \$15-17/h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스마트보험 Contracting/ 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력자우대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 Visa 및 영주권 스폰서 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 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가능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 및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중앙일보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센터빌,철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40년 경력
703-569-8000

급급, 센터빌/철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토랑/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 774 7443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험자 우대
703-717-2341

에난데일 치맥에서
Part time Server 구합니다.
571-352-4938
Chimc.va@gmail.com

▶에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셔러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셔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인 만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이미용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에(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철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철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이발소를 \$8만불 판매/하노버 매릴
랜드 엘리엇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
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 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세탁/엘터레이션

▶▶로튼 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강동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철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빙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기타/구인/청소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일을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반청소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말아서 해주실분
703-473-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엇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력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에난데일에 위치한 저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 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킨,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 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 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1, 주차1 남자분만
571-224-8585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운.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렌트 방2화1
부엌 화장실 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에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 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업 있음
703-244-345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8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홀 이중 욕실 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하나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능.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지하방, 워크아웃, 가구일체, 인터넷완비
엘리컷 씨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열린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윗층 큰방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홀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 지하방1/워아웃/샤워/
간단취사가능/여자/커플 환영/
페어팩스 머릴필드 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홀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홀, 방1개 렌트
▶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 237 3411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콘도 - 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 / 화1 /
큰 오피스사무공간
▶▶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홀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q.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 703-483-0505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맨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 631 3125

급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 571-239-6054

▶▶ 앤지 부동산 사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 리커 | 식당 | 카워키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 문의 : 703-678-6639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는
703-939-2737

▶▶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으로 가구 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판
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 814 8773

▶▶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
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 귀국 관계로 가사업체를 헐거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전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기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수스페인팅(In,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발당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손차이땅 / 매케낙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테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박 물새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양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디든,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 ◆수도꼭지 교체
- ◆싱크/디스포저
- ◆워터히터/물새는것
- ◆하수막힘/변기교체
- ◆씽폼 교체
- ◆루핑수리/거리교체
- ◆사이드 리페어/창문
- ◆데크 수리
- ◆드라이얼/페인트
-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팔피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채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ave no need for (something); (무엇이) 필요없다

Laura is talking to her co-worker Richard on the elevator.
(로라가 승강기 안에서 직장 동료 리처드와 얘기한다.)

Laura: Good morning Richard.
로라: 안녕 리처드.
Richard: Morning Laura.
리처드: 안녕 로라.
Laura: That's a nice leather bag. Is it new?
로라: 그 가죽백 멋있네. 새 거야?
Richard: Yes. My sister gave it to me.
리처드: 응. 누이가 준 거야.
Laura: It's nice.

로라: 좋다.
Richard: Her friend at work gave it to her but she had no need for it. My sister has so many bags.
리처드: 직장 친구가 누이한테 준 건데 필요 없대. 갖고 있는 백이 너무 많대.
Laura: Are you going to the meeting at 2:00?
로라: 2시 회의에 갈 거야?
Richard: I'll sit in and just listen. I don't think I'll have a lot to say.

리처드: 참관해서 그냥 듣기만 할 거야. 내가 할 말은 많지 않을 것 같아.
Laura: I'm sure the boss would like your input.
로라: 윗사람은 네 의견을 듣고 싶어할 텐데.
Richard: Well, if something comes up I'll share it with everybody.
리처드: 글썄. 뭔가 떠오르면 참석자 모두와 공유해야지.

기억할만한 표현
▶ sit in (on something): 참관하다.
"Would you like to sit in on the meeting we're having today?"
(오늘 열리는 회의에 참관하시겠어요?)
▶ (one's) input: 조언, 의견
"I got a lot of good input from the students."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달빛 따위가 몹시 환하게 밝은 모양. ~ 밝은 보름달 아래 은은히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3) 큰 물을 뒤에 두고 치는 진. 물러설 수 없으므로 온힘을 다하여 싸우게 되죠 (5)총이나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 (6)큰 바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먼 산에 구름같이 끼는 뽀얀 기운 (8)자꾸 젖거나 흔들어서 거품이 생기게 하여 공기를 충분히 포화시킨 맹물. 괴질이나 궤관 따위의 치료에 쓴다 (10)가늘게 다듬어 깎아서 무슨 표가 되도록 박는 나무 말뚝. 김 양식에 쓰이는 ~이 잔뜩 쌓여 있었다 (12)양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 (13)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느낌.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을 느끼다 (15)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가 환하다 (16)몹시 세고 빠르게 부는 바람 (19)어떤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 둔 기록 (21)입신출세를 위한 어려운 관문이나 시험. 잉어가 황허강 종류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려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죠 (23)공사장 등에서 쓰는 모자 (25)머리털을 양쪽으로 갈라붙일 때 생기는 금 (26)어린이를 태워 밀고 다니는 작은 수레

세로열쇠

(1)입술을 오므리고 입김을 불어 보श्य. 외롭다고 느끼실 땐 두 눈을 꼭 감고/나지막이 소리 내어 ~을 부세요(정미조) (2)일 년 중 날씨가 가장 맑다는 24절기 (3)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냄 (4)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도로 (6)매우 부피가 큰 돌. 내 쪽으면 한 개 ~가 되리라/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두 쪽으로 깨뜨려져도/소리하지 않는 ~가 되리라(유치환) (7)꽃의 특징에 따라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말. 빨간 장미는 열렬한 사랑, 수선화는 신비, 자존심, 고결을 뜻한다 (8)닭 등을 양념을 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9)살아서 익힌 쇠고기 (11)사냥할 때, 짐승이 잘 다니는 목을 지키는 포수 (12)한 발음 들고 한 발로만 뛰는 짓 (14)여행에 드는 비용 (15)새로 나온 일의 연한 초록빛 (17)종이 풍선에 촛불을 밝혀 공기를 데워 하늘로 띄워 보내죠. 화재의 위험이 있죠 (18)날마다 소식을 전해 주는 간행물. 지금 보고 계시는 ~은 일간스포츠 (20)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 (22)소형의 화물 자동차 (23)손으로 몸을 두드러거나 주무르는 일 (24)어머니의 젖

스도쿠

4		7		5		3	9	
				3		2		
		6		4	8			
2	7		1		3			
								1
					9			4
	9			6		5	1	
3							8	
	4	8	3	1		9	6	7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6	2	1	3	8	4	5
2	8	7	5	6	2	1	9	3
3	1	5	4	9	8	2	6	7
4	2	8	6	7	5	3	1	9
1	3	2	9	4	2	6	5	8
6	5	9	3	8	1	4	7	2
5	7	1	8	4	2	9	3	6
9	4	7	2	3	6	5	8	1
8	6	3	1	5	9	7	2	4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알래스카식당 매매
건강상, 아주오래된식당 연매상 \$80만 대지 14,000sf. 가격 문의바람 (907)545-0152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대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C&J TECH 채용 공고

▶ 회사 정보: 상호: C&J Tech Alabama 주소: 145 Plant 10 Dr, Alexander City, AL 35010 TEL: (256) 392-4291

모집 분야	지원자격	비고
사출 기술 경력자	Plastic 사출 Process Engineer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경력 5년 이상	전 분야 미국내 취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품질(QC) 경력자	품질 관련 업무 유경험자 사출회사 경력자 우대, 경력 3년이상 ~10년 미만	

▶ 처우 및 지원 절차
- 연봉 수준: 면접 합격자의 경력 사항을 반영하여 회사 내규에 따름
- 복리 후생: 건강보험/생명보험, 401K 지원, 비자/영주권 지원
- 지원/문의: sjshin@cnjtech.com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 아냐"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허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는데 두 달 만에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뤼노 고메즈 (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 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뤼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러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 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팡이 에 의지해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그에게 한 한인이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뤼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안와사와 함께 손발 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 이다. 중풍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항,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뤼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목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어눌했던 발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디마디를 풀어줘야 한다. 침과 뜸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깨나 이상근 (영양이)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옥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중증이 크게 호전된 델뤼노 고메즈 씨.
보강을 통해 증상을 해소하고 후유증을 줄이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반신 또는 한쪽 손가락이 힘이 없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하거나, 종종 손 발의 저림을 느낀다면 보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 중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암침법과 6단계 치료를 통해 집중적인 중풍 치료를 제공하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은 LA 한인타운 호바트 길 에 위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문의: (213)385-3304 ▶ 주소: 809S, Hobart Blvd, Los Angeles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배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썬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0/10LBS·1BOX \$100/10LBS·1BOX
\$14/lb 대추 \$11/lb 대추 \$7/lb 대추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